

『東醫壽世保元』少陰人 表病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한 考察 - 益氣와 升陽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¹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² · 韓醫學古典研究所³
朴修玄^{1, 2, 3} · 丁彰炫^{1, 2, 3} · 張祐彰^{2, 3}*

A Study on The Disease Mechanism and Treatment of The So-eumin Exterior Disease of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On Ikgi(益氣) and Seung-yang(升陽)-

Park Su-hyun^{1, 2, 3} · Jeong Chang-hyun^{1, 2, 3} · Jang Woo-chang^{2, 3}*

¹Dept. of Oriental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³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This paper studies the main treatment methods, Ikgi(益氣) and Seung-yang(升陽) applied frequently by Lee Jema(李濟馬) on the exterior disease of So-eumin(少陰人), one of the four constitutions.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harmacology of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by examining the formulas applied by Lee Jema. I have examined the organization of formulas i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beforehand to categorize the formulas applicable in this study according to an objective standard.

I have analyzed the prescriptions applied to So-eumin exterior disease. As a result, I could see that in the case of Ulgwang(鬱狂) syndrome, Ikgi(益氣) and Seung-yang(升陽) methods were mainly applied, but as the disease progressed, Seung-yang(升陽) was withdrawn while Ikgi(益氣) was stressed. Likewise, in the case of Mang-yang(亡陽), both methods were mainly adopted, but as the patients got worse, the level of Seung-yang(升陽) was maintained and that of Ikgi(益氣) was elevated with the addition of Buja(附子).

Through this process, we could verify the overall action of Ikgi(益氣), Seung-yang(升陽) and Buja(附子). Originally, the two methods of Ikgi(益氣) and Seung-yang(升陽) are intimately related, but by analyzing the overall functions of the two methods, we could see that Seung-yang(升陽) and Buja(附子) support the Yang gi of the interior of So-eumin, while Ikgi(益氣) resolves inner stagnation of Yang gi and emits the cold pathogen of the exterior. Also, in the course of treatment, Ikgi(益氣) could only be realized after securing Seung-yang(升陽).

Key Words : ikgi(益氣), seung-yang(升陽), mang-yang(亡陽), ulgwang(鬱狂),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soeumin(少陰人)

I. 序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少陰人 表病 중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해 논술하길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¹⁾이라고 하여 鬱狂證과 亡陽證이 원래부터 다른 가지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李濟馬가 제시한 少陰人의 鬱狂證과 亡陽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病證에 대한 명확한 研究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鬱狂證에 대해서만 그 病機를 명확히 논술하였으며²⁾, 亡陽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病機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 治法에 대해서도 鬱狂證의 경우에만 ‘升補’, ‘和解’와 ‘益氣而升陽’의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 亡陽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治法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論文에서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亡陽證의 病機에 대해 최근에 발표된 論文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황민우는 李濟馬의 亡陽證의 病機에 대해 ‘膀胱에서 陽氣가 鬱縮하여 생기는 病證’으로 기술하였다.³⁾ 여기서 황민우는 李濟馬가 張仲景의 下焦血證에 해당하는 病機로 제시한 내용을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공통 병리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⁴⁾ 이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근거로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⁵⁾

* 교신저자 : 張祐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jangchang@khu.ac.kr Tel: 02-961-0735.
접수일(2010년 2월 20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 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胃家實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 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65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3) 황민우. 四象醫學의 病因과 少陰人 少陽人 病理論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p.51.
- 4) 황민우. 四象醫學의 病因과 少陰人 少陽人 病理論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p.53.
- 5) 李濟馬는 『傷寒論』의 下焦血證에 해당하는 내용(전국 한의

다음으로 亡陽證 治法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용국은 李濟馬의 亡陽證이 證治醫學의 그것에 비해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을 지적하면서 그 治法에 대해서 ‘升陽益氣, 回陽益氣’를 언급하였지만, 그것을 제시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⁶⁾ 임진희 등도 역시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의 治法으로서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鬱狂證의 治法으로 제시된 이 治法이 少陰人 表病의 일반적인 治法으로 확대되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⁷⁾ 또한 이의주 등이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前四海, 後四海, 臟, 腑 등의 용어를 차용하여 少陰人 表裏病의 병리적인 기전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⁸⁾ 여기서 도입

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張仲景曰, 婦人傷寒發熱, 經水適來適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愈. 陽明病, 口燥, 嗽水不欲嚥, 此必衄, 不可下”과 『傷寒論』 조문 중 鬱狂證에 해당하는 조문(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噎, 傷寒嘔多, 雖有陽明, 不可攻, 胃家實, 不大便, 若表未解及有半表者, 先以桂枝柴胡和解, 乃可下也”)을 이어서 기술한 후, 이 모든 證에 마땅히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論曰, 右諸證,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여기서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은 모두 少陰人 表病에서 亡陽證이 아닌 鬱狂證에만 해당하는 處方이다. 따라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기술한 張仲景의 下焦血證은 少陰人 表病 전체가 아닌 鬱狂證에만 해당하는 病證임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病機 또한 일차적으로 鬱狂證에만 해당하는 病機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亡陽證의 病機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張仲景의 下焦血證에 해당하는 病機를 어떻게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전체의 공통 병리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김용국.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1. 3(1). pp.85-86.
- 7)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p.65.
- 8) 이의주, 송일병. 少陰人·少陽人篇의 表病裏病에 대한 考察(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四象醫學會誌. 1996. 8(1). p.46. “少陰人에게 있어서 表病은 表氣와 裡氣에서 陽氣上升作用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表氣에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腎局의 陽氣上升不利인 腎陽困熱, 膀胱의 陽氣上升不利인 下焦血證 등이 있고, 前四海에서 小腹의 陽氣上升不利인 胃家實이 있으며, 裡氣에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腸胃의 陽氣上升不利는 亡陽初證, 大腸에서 陽氣升降不

된 方法論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주목할 만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臟腑論」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직접 기술한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을 해석하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인 방법에 속하며, 이러한 研究方法은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東醫壽世保元』에서 亡陽證에 관하여 李濟馬가 직접 「臟腑論」의 논리로써 病證을 해석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臟腑論」의 개념을 차용하여 구성한 일반적인 수준의 병리모델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이며 불완전한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筆者는 성급한 일반화를 추구하기보다는, 李濟馬의 경험과 논리 내에서 病證과 治法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甲午本 등의 관련 자료 역시, 완성도가 높은 辛丑本의 내용과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이 한정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는 결국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과 그에 따른 오류를 최대한 회피하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筆者는 본 論文에서 李濟馬의 病證藥理를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表病을 研究하고자 하였다. 病證藥理를 중심으로 病證論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도구인 處方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研究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少陰人 表病을 研究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기술한 少陰人의 病證藥理가 다른 체질에 비해 가장 많이 發明되어있기 때문에⁹⁾ 研究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체질에 비해 研究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論文의 研究 과정에 대해 약술해보면, 먼저 病

證藥理를 중심으로 하는 『東醫壽世保元』 研究 方法論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논술한 후 研究 대상으로 상정할 處方의 범주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해 3종류의 少陰人 處方 編制의 분류 기준을 考察하였다. 이후 간단히 少陰人 表病에 대해 살핀 후, 鬱狂證과 亡陽證의 處方과 處方名을 통해 少陰人 表病에 대한 李濟馬의 治法을 밝혀낼 수 있는 지표 약물들을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요한 도구로 삼아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에 사용한 處方들을 분석함으로써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에 응용한 治法을 분석하였다.

한편, 研究 過程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論文에서는 少陰人 表病의 病機에 대한 研究를 진행하였으며, 益氣 및 升陽 治法의 실제적인 作用機轉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한 考察을 진행하였다.

II. 本論

1. 病證藥理를 중심으로 한 『東醫壽世保元』 病證論 研究 方法論 도입의 필요성

현재 四象醫學界에서는 病證論 研究 方法으로서 「臟腑論」을 중심으로 각 體質別 病證을 研究하는 方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臟腑論」을 중심으로 한 病證論 研究 方法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臟腑論」을 통해 四象人 臟腑生理의 대체를 설명하였고, 각 體質別로 表病과 裏病의 編制를 정하면서 篇名을 기술할 때 臟腑를 이용하여 정하였으며, 篇名 뿐만 아니라 실제 病證論을 기술한 내용에서도 臟腑를 통해 病機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病證論을 研究하는 데 있어 「臟腑論」을 주요한 도구로 상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될 수 있다.¹⁰⁾ 하지만 「臟

利는 脾約證(亡陽中證), 裡氣에서 表氣로 外遁하는 亡陽末證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少陰人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10) 「臟腑論」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뿐만 아니라 辛丑本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甲午本에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李濟馬가 甲午本 혹은 辛丑本을 著述한 시기와는 상관없이 四象醫學의 기본 전제로서 일관되게 생각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臟腑論」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病證論의 내용

腑論」을 중심으로 각 體質別 病證論을 研究할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病證의 病機를 올바르게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病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체의 生理 機轉 안에 病證에 대한 이해를 적용시킴으로써 정확한 病機를 분석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生理 機轉에 대한 불변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病機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病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病證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臟腑論」을 통해 病證을 研究하는 방법은 자칫 다양한 해석의 여지 중 하나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기 쉽다. 이것은 四象醫學의 창시자인 李濟馬도 病證 研究 과정 상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로 李濟馬 스스로도 「臟腑論」을 통해 病證論을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을 각각 해당 篇名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甲午本에서 각 體質別로 病證에 대한 篇名을 정하였는데, 이를 「臟腑論」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하지만 篇名에 사용된 「臟腑論」의 용어를 살펴보면 臟과 腑를 지칭하는 용어와 部位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臟腑論」의 내용을 바탕으로 臟과 腑를 살펴보면 臟에 해당하는 것은 肺, 脾, 肝, 腎이며, 腑에 해당하는 것은 胃脘, 胃, 小腸, 大腸이다. 이를 바탕으로 甲午本에 기술된 病證論 篇名을 살펴보면, 「少陰人內觸胃病論」처럼 四象醫學의 臟腑에 해당하는 胃로서 篇名을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甲午本の 病證論 篇名에는 「臟腑論」의 내용 중 臟腑가 아닌 용어으로써 기술된 篇名도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外感膂病論」에서는 ‘膂’로 기술하였고, 「少陽人外感膀胱病論」에서는 ‘膀胱’으로, 「太陰人外感腦顛病論」

에서는 ‘腦顛’로, 「太陽人外感腰脊病論」에서는 ‘腰脊’으로서 臟腑가 아닌 용어로 기술하였다.¹¹⁾ 여기서 臟腑 대신 기술된 膂, 膀胱, 腦顛, 腰脊은 「臟腑論」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모두 人體의 上下 部位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李濟馬가 甲午本을 著述할 당시 「臟腑論」를 體質別 病證에 적용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甲午本에 이어 저술된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 문제가 되었던 病證論의 내용들을 李濟馬가 많은 부분 수정, 보완하면서 내용이 더욱 정밀해졌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리하여 辛丑本の 病證論 篇名¹²⁾ 또한 앞서 甲午本에서 문제가 되었던 ‘膂’ 대신 臟腑 중 하나인 ‘腎’으로, ‘膀胱’ 대신 臟腑 중 하나인 ‘脾’, ‘腦顛’ 대신 臟腑 중 하나인 ‘胃脘’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病證論 篇名에 맞게 臟腑를 이용하여 病證과 관련한 病理 機轉을 설명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¹³⁾ 하지만 이와는 달리 甲午本에서 사용된 篇名 그대로 기술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太陽人 表病의 경우 李濟馬는 甲午本과 辛丑本 모두에서 「太陽人外感腰脊病論」으로 篇名을 기술하였는데, ‘表’가 아닌 ‘外感’, 臟腑가 아닌 ‘腰脊’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 이유는 李濟馬 스스로 「醫源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太陽人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11)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기술한 體質別 篇名은 ‘少陰人外感膂病論’, ‘少陰人內觸胃病論’, ‘少陰人膂胃病篇尾凡論’, ‘少陽人外感膀胱病論’, ‘少陽人內觸大腸病論’,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凡論’, ‘太陰人外感腦顛病論’, ‘太陰人內觸胃脘病論’, ‘太陽人外感腰脊病論’,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이다.

12)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の 病證論에 기술한 體質別 篇名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陽人外感腰脊病論’,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이다.

1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65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即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即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腎間, 膠固因滯之病也”

이 바뀐 것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이러한 「臟腑論」을 활용하여 病證을 해석할 경우 病證에 대한 이해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病證을 파악할 수 있는 불변의 고정된 척도가 된다.

다.14) 실제로 李濟馬는 ‘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에 기술하길 “나는 말하기를, 경험 處方이 방대하지 못한 것은 병을 경험한 것이 많지 못한 까닭이다. 태양인 수는 예로부터 희소하다. 그러므로 옛날 방서(方書) 중에 증과 약을 기재한 바 역시 희소한 것이다. 지금 이 오가피장척탕과 미후등식장탕의 處方을 만든 것이 초창하여 비록 흠이 있고 넓게 아우르지는 못하나 만일 태양인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이 두 處方으로 자제히 그 이치를 연구하고 또 변통해서 處方을 만든다면 어찌 좋은 약이 없음을 근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1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李濟馬가 辛丑本을 저술할 당시 太陽人의 病證과 藥에 대한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太陽人 病證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體質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논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病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臟腑論」 만으로는 정확한 病機를 파악할 수 없음을 李濟馬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臟腑論」을 통한 病證論 研究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상의 오류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필자는 성급한 일반화를 추구하기보다는 李濟馬의 경험과 논리 내에서 病證과 治法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선행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病證論의 病機에 관한 研究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病證藥理 중심의 研究 方法論을 본 論文에 도입하고자 한다. 病證藥理를 중심으로 한 病證論 研究 方法은 李濟馬가 사용한 少陰人 處方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삼는다. 處方을 분석하는 것을 研究 方法의 시작으로 삼은 이유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확정적인 도구인 處方과 藥物을 研究의 기준으로 삼을 때 研究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處方을 분석

하는 구체적인 方法은 辛丑本에 기재된 少陰人 處方들과 그 處方들의 治法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治法을 분석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약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약물들을 통하여 특정 處方に 포함된 지표 약물의 가지 수와 용량에 따라 어떠한 治法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당 處方に 반영되어 있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處方に 반영된 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李濟馬가 病證의 治法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處方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급적 李濟馬가 사용한 용어의 범위 안에서 病證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 과정을 통해 밝혀낸 治法을 통해 少陰人 表病의 病機에 대해서 考察하는 것을 본 研究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2. 李濟馬가 기술한 少陰人 處方 編制에 따른 분류 기준 考察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少陰人 處方을 크게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그리고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3가지 編制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少陰人 뿐만 아니라 少陽人과 太陰人 또한 少陰人의 處方 編制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따라서 본 論文의 研究 方法論에 따라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 실린 處方들과 治法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研究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는 각각의 少陰人 處方 編制가 李濟馬가 생각한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기술된 것인지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이렇게 少陰人 處方 編制를 考察하는 과정을 본격적인 研究에 앞서 진행하는 목적은 少陰人의 處方

1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太陽人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 而本草略有藥理”

1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724. “論曰, 藥驗不廣者, 病驗不廣故也. 太陽人數從古稀少, 故古方書中, 所載證藥, 亦稀少也. 今此五加皮壯脊湯彌猴藤植腸湯, 立方草草, 雖欠不博而, 若使太陽人有病者, 因是二方, 詳究其理而, 又變通置方則何患乎無好藥哉”

16)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과 달리 太陽人의 處方 編制는 ‘本草所載 太陽人病 經驗要藥 單方十種 及 李梴 龔信 經驗要藥 單方二種’, ‘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編制別로 분류된 기준을 考察하여 編制에 따른 處方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본 研究에서 각각의 編制에 따른 處方과 藥물을 활용하기에 논리적으로 적합한 범주에 포함되는 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處方과 藥물을 근거로 진행하는 研究 과정 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1)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

3개의 少陰人 處方 編制 중 순서에 따라 먼저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대하여 살펴보면,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은 篇名을 통해 기본적으로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인용한 處方들을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篇名에 '少陰人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編制에 실린 處方들의 適應證이 모두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篇名 중에 있는 '經驗設方藥'을 통해 본 編制가 張仲景이 당시 많은 病證 중 少陰人病에 해당하는 病證을 경험한 후 方과 藥을 설립하고 만들어낸 處方들임을 알 수 있다.¹⁷⁾ 이는 張仲景이 큰 틀에서 한의학의 치료 방향과 이에 따른 실제적인 處方들과 구성약물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그리고 당연히 張仲景이 치료 방향과 處方を 제시한 시기가 한의학이 비로소 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시대별로 醫學 經驗이 쌓이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

로 이전 시대에 파악되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는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각 體質別 病證 藥理에 관하여 기술한 부분에서, 시대가 거듭되면서 각 體質別 病證藥理에 대한 내용이 더욱 정밀해지고 성숙되어지는 내용을 기술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⁹⁾²⁰⁾ 따라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포함되어 있는 處方들의 경우 李濟馬가 생각하기에 少陰人의 生理機轉에 정밀하게 부합하는 處方들도 있지만, 본 編制에 기재된 處方 전체가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의 生理機轉에 정밀하게 부합하여 기재된 것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編制에 포함된 處方들과 그에 대한 李濟馬의 기술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의 경우 총 23개의 處方이 기록되어 있다.²¹⁾ 이 중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腎受熱表熱病論」에서 桂枝湯과 人蔘桂枝湯, 그리고 大承氣湯에 대해 많은 부분을 논술하였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본 編制에 포함된 23개의 處方 중 이 세 處方を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일관되게 적용된 處方 분류 기준을

17) 실제로 李濟馬는 太陽人의 處方도 직접 創方하였으며, 太陽人 處方의 篇名 또한 '設方藥'으로 命名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724. "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

18) 이것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醫源論」에서 張仲景이 비로소 의가를 이루어 책을 저술하여 의도가 비로소 흥하게 되었다는 내용(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袁周秦漢以來扁鵲有名, 而張仲景, 具備得之, 始爲成家著書, 醫道始興")을 기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張仲景의 치료 방향 및 그에 따른 處方の 제시가 한의학적으로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것과 함께 李濟馬가 생각하기에 張仲景의 病證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方藥이 굉장히 정밀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

1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少陰人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 大半乎昭詳發明. 太陽人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 而本草略有藥理."

20) 물론 少陰人의 경우 醫學 發展의 초기 단계, 즉 『傷寒論』이 저술된 시기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의 病證藥理가 發明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少陰人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 하지만 少陰人의 病證藥理 또한 시대가 거듭되면서 이전 시기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醫源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따라서 少陰人의 病證藥理가 시대에 따라 점차로 더욱 완비되어져가는 대체는 少陰人 外의 다른 體質의 病證藥理 發展 과정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1)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실린 處方은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順理中湯, 人蔘桂枝湯, 四逆湯, 厚朴半夏湯, 半夏散, 赤石脂禹余糧湯, 附子湯,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當歸四逆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茵陳蒿湯, 抵當湯, 桃仁承氣湯, 麻仁丸, 蜜導法, 大承氣湯, 小承氣湯으로 총 23개이다.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桂枝湯과 人蔘桂枝湯에 대하여 살펴보면, 李濟馬는 이 두 處方이 少陰人에게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處方임을 언급하였다.²²⁾ 따라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실린 處方 중 少陰人의 生理 機轉이 거의 정확하게 반영된 處方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李濟馬는 桂枝湯과 人蔘桂枝湯에 관한 언급에 이어서 곧장 大承氣湯에 관해 기술하면서 大承氣湯이 少陰人에게 적합하지 못한 處方이며 심지어 少陰人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²³⁾ 이는 앞서 언급한 桂枝湯, 人蔘桂枝湯과는 달리 본 編制에 실린 處方 중 大承氣湯과 같이 少陰人에게 적합하지 않은 處方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少陰人의 生理 機轉이 정확하게 處方に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로서 李濟馬가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을 구성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桂枝湯과 人蔘桂枝湯, 大承氣湯의 경우 適應證이 모두 少陰人의 病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桂枝湯을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傷寒論』 處方과 관련된 條文 중 제일 먼저 桂枝湯 條文을 제시하였으며²⁴⁾, 또한 少陰人 表病에서 桂枝湯 뿐만 아니라 桂枝湯의 方劑 구성에 몇 가지 藥物들을 더하여 川芎桂枝湯²⁵⁾과 黃耆桂枝湯²⁶⁾으로 응용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傷寒論』의 桂枝湯을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에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桂枝湯의 適應證이 少陰人의 病證과 정밀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人蔘桂枝湯을 살펴보면²⁷⁾, 李濟馬는 桂枝湯과 마찬가지로 『傷寒論』의 人蔘桂枝湯의 條文을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제시하였다.²⁸⁾ 따라서 人蔘桂枝湯의 適應證 또한 桂枝湯과 마찬가지로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大承氣湯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大承氣湯에 대해 상당 부분 지면을 할애하여 논술했으며, 구체적으로 『傷寒論』의 陽明病 提綱과 轉屬陽明에 대한 病證 내용을 논술한 후²⁹⁾ 이 證을 ‘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으로 命名하면서 『傷寒論』의 大承氣湯證으로 기술하였다.³⁰⁾ 따라서 大承氣湯의 適應證은 ‘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으로서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의 處方 분류 기준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본 編制는 張仲景의 『傷寒論』 處方 중 少陰人에게 적합한 處方인가를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處方의 適應證이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실린 處方과 藥物들을 분석함으로써 研究를 시작할 경우 李濟馬가 인식한 少陰人의 生理 機轉

2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

2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而大承氣湯則, 置人死生於茫無津涯之中, 必求大承氣湯可用時候而待其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狂言時, 是豈美法也哉”

2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0. “太陽傷風脈,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翕翕發熱鼻鳴乾嘔, 桂枝湯主之.”

2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8. “川芎桂枝湯, 桂枝, 三錢, 白芍藥, 二錢, 川芎, 蒼朮, 陳皮, 甘草炙,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2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8. “黃耆桂枝湯, 桂枝, 三錢, 白芍藥, 黃耆, 各二錢, 白何首烏, 當歸, 甘草炙,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27) 人蔘桂枝湯은 본래 『傷寒論』에서 桂枝人蔘湯으로 기록되어 있다.(文濬典 외 6인.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p.342. “太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蔘湯主之.”) 따라서 桂枝人蔘湯이 본래 맞는 표기이다.

2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太陽病外證未除而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 人蔘桂枝湯主之.”

2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張仲景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 緣何得陽明病. 答曰, 太陽病, 發汗若下若利小便者, 此亡津液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3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2-653. “論曰, 秦漢時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張仲景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其人澀然微汗出胃中燥煩實,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熱不惡寒, 狂言如見鬼狀之時而用之則神效”

과는 맞지 않는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의 處方을 본 論文의 研究 범위에 포함시키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다음으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이어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의 編制에 대해 살펴보면,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은 篇名을 통해 기본적으로 宋元明 三代에 해당하는 시기의 處方들을 인용하여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篇名에 '少陰人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編制에 실린 處方들의 適應證이 모두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篇名 중에 있는 '經驗行用要藥'³¹⁾을 통해 본 編制가 앞서 『傷寒論』에서 처음 方藥이 설립된 것과는 달리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臨床 經驗을 통해 더 다듬어지고 보편화된 處方들로 구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傷寒論』에 비해 정밀해진 處方들은 이전 시대의 處方들에 비해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證狀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處方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少陰人의 生理 機轉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마치 맞춤복이 아닌 기성복이기 때문에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와 같다. 따라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포함되어 있는 處方들의 경우 少陰人의 生理 機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반영 되어있지만, 李濟馬의 입장에서 엄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編制에 포함된 處方들과 그에 대한 李濟馬의 기술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실린 處方은 총 19개로서³²⁾,

31) '行用要藥'의 뜻은 두루 널리 사용하며 유행하는 중요한 處方이라는 의미이다.

크게 巴豆를 포함하지 않은 處方 13개와 巴豆를 포함한 處方 6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處方 부류를 각각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본 編制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巴豆를 포함하지 않은 處方의 경우 본 編制의 處方 중 香蘇散과 霹靂散과 관련된 내용이 辛丑本の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과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와 함께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은 본 編制 안에 處方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 네 處方을 중심으로 하여 巴豆를 포함하지 않은 處方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巴豆를 포함한 處方의 경우 대표적으로 巴豆藥 六方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된 溫白元을 통하여 본 編制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香蘇散과 霹靂散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處方 모두 少陰人에게 적합한 處方임을 알 수 있다. 먼저 香蘇散에 대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危亦林의 『世醫得效方』에서 언급한 香蘇散 條文을 인용하여 기술하였으며³³⁾ 실제로 少陰人 表病의 '發熱惡寒而無汗者' 단계에 香蘇散과 芎歸香蘇散을 사용하도록 기술하였다.³⁴⁾ 따라서 香蘇散의 適應證과 方劑 구성 모두 少陰人에게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霹靂散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李濟馬는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李梴이 陰盛格陽證에 대체로 霹靂散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하였으며,³⁵⁾ 실제로 陰盛格陽證에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과 더불어 혹은 霹靂散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³⁶⁾ 따라서 霹靂散

32)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실린 處方은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木香順氣散, 蘇合香元, 藿香正氣散, 香蘇散, 桂枝附子湯, 茵陳四逆湯, 茵陳附子湯, 三味蓼黃湯, 霹靂散, 溫白元, 瘴疔丸, 三稜消積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으로 총 19개이다.

3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危亦林得效方曰, 四時瘟疫, 當用香蘇散"

3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3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3. "李梴曰, 傷寒陰盛隔陽, 其證, 身冷反躁, 欲投井中, 脣青面黑, 渴欲飲水復吐, 大便自利黑水, 六脈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 大虛證也. 宜霹靂散"

3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의 適應證과 方劑 구성 또한 香蘇散과 마찬가지로 少陰人에게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중 巴豆를 포함하지 않는 處方 가운데에는 少陰人의 生理 機轉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處方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處方은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인데, 두 處方 모두 李濟馬가 少陰人에게 가감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補中益氣湯에는 黃耆는 三錢을 쓰고 升麻, 柴胡를 빼고 藿香, 紫蘇葉을 더하여 쓸 것을 주문하였고³⁷⁾, 藿香正氣散에는 桔梗, 白芷, 白茯苓을 빼고 桂皮, 乾薑, 益智仁을 더하여 쓸 것을 주문하였다.³⁸⁾ 이것은 두 處方 모두 대체는 少陰人에게 적합한 處方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과 맞지 않는 약물 구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巴豆藥 六方 중에서 대표적으로 溫白元을 통해 본 編制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술한 香蘇散, 霹靂散과 같이 溫白元의 適應證 또한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한다. 이는 李濟馬가 ‘宋元明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溫白元이 巴豆를 중심으로 한 處方³⁹⁾임을 제시한 후, 대체로 少陰人病에 巴豆를 반드시 써야 함⁴⁰⁾을 기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溫白元의 方劑 구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少陰人에게 적합하지 않은 약물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溫白元의 方劑 구성을 살펴보면 黃蓮이 구성 약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黃蓮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이 아닌 少陽人에게 사용한 약물이다.⁴¹⁾ 따라서

이를 통해 溫白元이 少陰人의 生理 機轉에 정밀하게 부합하는 處方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李濟馬는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巴豆를 사용한 6개의 處方이 모두 巴豆를 중심으로 사용한 處方으로 사실 차이가 없이 한 가지⁴²⁾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溫白元을 포함한 巴豆藥 六方의 약물 구성 중 巴豆 이외에 다른 약물들에 대해서는 少陰人에게 의미있는

41)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胃受寒寒病論」에 『傷寒論』의 半夏瀉心湯, 甘草瀉心湯, 厚朴半夏湯, 生薑瀉心湯, 赤石脂禹余糧湯 條文 내용을 기술하고서 곧이어 ‘藿香正氣散(藿香正氣散)·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관중탕(寬中湯)·소합원(蘇合元)은 모두 장중경사심탕(瀉心湯)의 변제(變劑)이니 이것이 이른 바 정출어람이다. 청(靑)이 비록 푸르나 그 남초(藍草)가 아니었으면 어찌 푸른 것을 얻었겠는가.’(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9.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 皆張仲景瀉心湯之變劑也. 此所謂靑於藍者, 出於藍, 噫, 靑雖自靑, 若非其藍, 靑何得靑”)라고 기술하였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李濟馬는 少陰人에게 사용하는 藿香正氣散과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을 모두 『傷寒論』의 瀉心湯을 변형하여 만든 處方으로 이해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李濟馬가 變劑에 대한 내용에 앞서 인용한 『傷寒論』條文 중 瀉心湯에 해당하는 半夏瀉心湯과 甘草瀉心湯, 그리고 生薑瀉心湯에는 공통적으로 黃蓮이 들어간다. 그런데 藿香正氣散과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이 瀉心湯의 變劑라고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瀉心湯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중심약물에 해당하는 黃蓮을 瀉心湯의 變劑에 해당하는 處方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李濟馬 스스로 黃蓮이 少陰人의 生理 機轉에 부합하지 않는 약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李濟馬가 少陽人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李濟馬는 少陽人의 黃蓮清腸湯에 黃蓮을 활용하였으며(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704. “黃蓮清腸湯, 生地黄, 四錢, 木通, 茯苓, 澤瀉, 各二錢, 猪苓, 車前子, 川黃蓮, 羌活, 防風, 各一錢, 右方治痢疾者, 宜用去木通, 二錢, 加荊芥, 一錢麻, 病者, 宜用”), 「少陽人脾受寒寒病論」의 少陽人條文 중에 ‘身寒腹痛泄瀉者에게 黃蓮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5. “身寒腹痛泄瀉者 用黃連 苦參無疑”) 이는 李濟馬가 黃蓮을 명확히 少陽人에게 해당하는 약물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少陰人 處方인 藿香正氣散과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에 黃蓮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論曰, 右巴豆六方, 卽古人之各自置方, 各自經驗而此六方, 同是一巴豆之力, 則所用, 亦無異而同歸於一也”

2005, p.663. “論曰, 此證, 當用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或用霹靂散”

3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2. “今考更定, 此方, 黃芪, 當用, 三錢, 而當去升麻, 柴胡, 當用, 藿香, 紫蘇葉”

3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3. “今考更定, 此方, 當去, 桔梗, 白芷, 白茯苓, 當用, 桂皮, 乾薑, 益智仁”

3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論曰, 右巴豆六方, 卽古人之各自置方, 各自經驗而此六方, 同是一巴豆之力則所用”

4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蓋巴豆, 少陰人病之必不可不用”

약물로서 낱낱이 분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의 處方 분류 기준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본 編制는 宋元明 三代의 處方 중 少陰人에게 정밀하게 적합한 處方인가를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處方的 適應證이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실린 處方과 藥物들을 분석함으로써 研究를 시작할 경우 李濟馬가 인식한 少陰人의 生理機轉과는 맞지 않는 오류가 필연적으로 조금씩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의 處方을 본 論文의 研究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다음으로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이어서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編制에 대해 살펴보면,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은 篇名을 통해 기본적으로 李濟馬 이전 시기의 處方이 아니라 李濟馬가 새로 정하여 기술한 編制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篇名에 ‘少陰人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編制에 실린 處方들의 適應證이 모두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篇名 중에 있는 ‘應用要藥’⁴³⁾을 통해 본 編制가 앞서 宋元明 三代의 보편화된 處方들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少陰人에게 꼭 맞는 處方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編制는 앞서 논술한 두 編制와는 달리 李濟馬가 이해한 少陰人의 生理機轉을 엄밀하고 정확히 반영하여 기술한 處方 編制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編制에 포함된 處方들을 그에 대한 李濟馬의 기술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실린 處方은 크게 李濟馬가 創方하여 處方名을 새롭게 命名한 處

方과 종래에 활용되었던 處方的 處方名을 그대로 이어받은 處方으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處方으로는 대표적으로 升陽益氣湯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處方에는 대표적으로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이 있다. 여기서 升陽益氣湯과 같은 부류의 處方들은 李濟馬가 새롭게 創方한 處方들이기 때문에 處方 구성과 處方名 자체로 少陰人의 病機를 분석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補中益氣湯, 藿香正氣散과 같은 부류의 處方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醫家들과는 다른 李濟馬만의 少陰人에 대한 生理機轉과 治法이 반영되어 있는지 考察해야만 본 編制의 분류 기준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李濟馬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에 사용하였고⁴⁴⁾, 少陰人 藿香正氣散을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에 사용하였는데,⁴⁵⁾ 이는 모두 본 論文에서 향후 다루고자 하는 少陰人 表病의 處方이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 이 두 處方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升陽益氣湯의 부류, 즉 李濟馬가 완전히 새롭게 創方한 處方에 대한 논술은 차치하고, 종래에 활용되었던 處方的 處方名을 그대로 이어받은 處方 중 대표적으로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⁴⁶⁾

먼저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補中益氣湯의 경우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 李杲의 東垣書에 실린 處方을 인용한 것임을 밝혔다.⁴⁷⁾ 따라서 李濟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方義는 근본적

4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4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46) 지금부터 논의하는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의 경우 종래의 處方과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處方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고자 본 論文에서는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補中益氣湯과 藿香正氣散의 경우 少陰人 補中益氣湯, 少陰人 藿香正氣散으로 기술할 것임을 밝힌다.

4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2. “此方, 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43) ‘應用要藥’의 뜻은 응당 사용해야 할 중요한 處方이라는 의미이다.

으로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온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李濟馬는 종래에 사용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의 方義를 이어받으면서도 少陰人에게 맞게 능동적으로 處方을 수정하고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내용 중 補中益氣湯에 관하여 李東垣이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李濟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분석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⁴⁸⁾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은 『東醫寶鑑』에서 「內傷門」의 「勞倦傷治法」에 기술된 處方이며,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 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도 補中益氣湯의 適應證에 대하여 「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內傷은 外感과 대비되는 말이며⁴⁹⁾, 內傷은 『東醫壽世保元』에서 腹背表裏로 나눈 구조 상 裏에 속한다. 따라서 李濟馬가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少陰人 表病이 아닌 裏病에 補中益氣湯을 기술하는 것이 맥

락 상 李東垣 및 許浚의 생각과 일치한다. 하지만 李濟馬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表病의 亡陽證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과 李濟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⁰⁾

뿐만 아니라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升麻와 柴胡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비위가 부족한 證狀에 반드시 升麻와 柴胡를 쓰는 것은 비위 속의 청기(淸氣)를 끌어서 양도(陽道)와 모든 경락으로 다니게 하여 음양의 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위를 치료하는 약에 대부분 ‘승양’이나 ‘보기’라는 이름이 붙는다. 『동원』”⁵¹⁾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東醫寶鑑』에 기재되어 있는 李東垣의 升陽과 補氣에 대한 생각으로서, 李東垣이 사용한 升麻와 柴胡는 補中益氣湯 內에서 ‘升陽’, ‘補氣’의 治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東醫寶鑑』에 기술한 바와 같이 脾胃가 부족한 證狀에 반드시 쓰는 升麻와 柴胡를 도리어 빼고,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구성하였다. 이를 볼 때 李濟馬가 만든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李東垣의 升陽이나 補氣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處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48) 『東醫寶鑑』의 내용과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李濟馬의 독창적인 생각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인용문 전체를 모두 『東醫寶鑑』에서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p.84.)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東醫寶鑑』에서 범한 인용문헌의 오류를 「東醫壽世保元」에서 그대로 따른 경우이며, 이러한 예는 李濟馬가 『東醫寶鑑』에 기재되어있는 원서 자체보다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한 것임을 증명한다.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의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회지, 1993. 5(1), p.32.) 뿐만 아니라 李濟馬는 「醫源論」에서 歷代 醫家 중 許浚을 최고로 꼽았다. (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若以醫家勤勞功業, 論之則當以張仲景, 朱肱, 許浚首, 而李埏, 龔信次之.”) 따라서 李濟馬는 醫學의 經驗과 思想 면에서 『東醫寶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李濟馬가 기술한 내용과 『東醫寶鑑』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李濟馬의 少陰人에 대한 독창적인 생각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

49) 許浚은 『東醫寶鑑·雜病篇』의 編制를 外感和 內傷으로 크게 이등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東醫寶鑑·雜病篇卷四』의 「內傷門」에 앞서 『東醫寶鑑·雜病篇卷二』와 『東醫寶鑑·雜病篇卷三』에 風, 寒, 暑, 濕, 燥, 火를 기술함으로써 外感에 해당하는 내용과 內傷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許浚도 『東醫寶鑑』의 雜病篇을 기술하면서 사실 상 外感和 內傷을 나누어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50) 이 論文을 읽는 讀者들 중에서는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雜病을 분류할 때 內傷과 外感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讀者가 이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 論文의 주장은 큰 틀에서 어그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腎受熱表熱病論」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기술하기에 앞서 『東醫寶鑑』에 기술된 『傷寒論』 太陽病 提綱과 『傷寒論』 桂枝湯 條文, 그리고 溫疫과 관련된 香蘇散 條文, 그리고 傷寒에 사용하는 藿香正氣散 條文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기술한 맥락 그대로 『東醫寶鑑』의 編制에 補中益氣湯을 넣는다면 당연히 「寒門」, 혹은 「溫疫」과 관련한 編制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東醫寶鑑』內에서 補中益氣湯은 「內傷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 기술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과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그 맥락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1) 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221. “凡脾胃不足之證, 須用升麻, 柴胡, 引脾胃中淸氣, 行於陽道, 及諸經, 生發陰陽之氣, 故凡治脾胃藥, 多以升陽補氣 名之者, 此也. 『東垣』”

李濟馬는 이동원의 補中益氣湯에서 升麻와 柴胡를 빼면서 藿香, 蘇葉을 더하여 사용했는데, 藿香과 蘇葉은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 모두에 사용하는 少陰人 藿香正氣散의 구성 약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약물이다.⁵²⁾ 따라서 藿香과 蘇葉은 少陰人의 生理 機轉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약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藿香과 蘇葉을 升麻, 柴胡를 뺀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 더한다는 것은 李濟馬가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을 少陰人에게 맞게 정밀하게 수정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藿香正氣散에 대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 藿香正氣散이 龔信的 『醫宗金鑑』에 실린 處方을 인용한 것임을 기술하였다.⁵³⁾ 따라서 李濟馬가 사용한 藿香正氣散의 方義는 근본적으로는 龔信的 藿香正氣散에서 온 것이 명백하며, 실제로 龔信이 藿香正氣散을 不分表裏에 쓰고자 創方한 의도⁵⁴⁾를 李濟馬도 少陰人 藿香正氣散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⁵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李濟馬

가 龔信의 藿香正氣散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少陰人 藿香正氣散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少陰人에게 적합한 약물들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少陰人 藿香正氣散은 龔信의 藿香正氣散에 蒼朮, 靑皮, 桂皮, 乾薑, 益智仁이 더한 處方인데, 李濟馬가 추가한 약물들 중 乾薑과 靑皮, 益智仁에 대해 李濟馬가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乾薑은 李濟馬가 少陰人 裏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사용한 약물 중 하나이다.⁵⁶⁾ 따라서 少陰人 藿香正氣散에 李濟馬가 생각한 裏病의 중심 약물 중 하나인 乾薑이 더해진 것은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의 生理 機轉이 少陰人 藿香正氣散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乾薑과 더불어 龔信의 藿香正氣散에서 더해진 靑皮와 益智仁을 함께 분석해보면 少陰人 藿香正氣散에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의 生理 機轉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少陰人의 小便을 매끄럽게 하는 약으로 乾薑, 良薑, 陳皮, 靑皮, 香附子, 益智仁을 제시하였는데,⁵⁷⁾ 이 6개의 약재 중 乾薑과 靑皮, 益智仁은 모두 李濟馬가 龔信의 藿香正氣散에서 새롭게 더한 약물이다. 여기에 龔信의 藿香正氣散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陳皮를 더하면 少陰人의 小便을 매끄럽게 하는 약물 6개 중 4개가 少陰人 藿香正氣散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少陰人 處方 중에서 赤白何烏寬中湯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少陰人의 利小便藥이 포함된 것이다.⁵⁸⁾ 결론적으로

藿香正氣散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52) 李濟馬가 少陰人 處方에서 藿香, 蘇葉을 함께 사용한 處方은 少陰人 藿香正氣散 뿐이다. 그리고 少陰人 藿香正氣散에서 藿香은 一錢五分, 紫蘇葉은 一錢이며, 薑 三片, 棗 二枚를 뺀 나머지 약들은 모두 五分이다. 따라서 약재의 분량 상으로도 藿香, 蘇葉이 少陰人 藿香正氣散의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補中益氣湯에 더해진 藿香, 蘇葉은 少陰人 藿香正氣散과 연관성을 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少陰人의 生理가 반영되어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5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3.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傷寒”

5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龔信醫鑑曰, 傷寒頭痛身疼不分表裏證, 當用 藿香正氣散”

55) 李濟馬는 少陰人 藿香正氣散을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었다. 表病의 경우에는 ‘發熱惡寒而無汗者’에 사용하였고,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鬱狂證에서는 大腸怕寒에 사용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大腸怕寒則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그리고 裏病의 경우에는 ‘太陰證 下利清穀者’에 藿香正氣散을 사용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9.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따라서 李濟馬는 少陰人의 表病과 裏病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56) 李濟馬는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에서 『傷寒論』을 인용하면서 四逆湯, 理中湯, 大承氣湯을 處方으로 기술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8.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爲太陰, 宜四逆湯, 理中湯, 腹滿不減減不足言, 宜大承氣湯”) 여기서 大承氣湯은 少陰人에게 적합치 않은 處方임으로 제외하도록 하면 四逆湯과 理中湯이 남는데, 이 두 處方의 공통적인 약물이 바로 乾薑이다. 실제로 李濟馬는 少陰人 裏病에 理中湯을 기본으로 創方한 白何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등 裏病의 중심 處方들에서 모두 乾薑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5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6. “若欲利小便則, 乾薑, 良薑, 陳皮, 靑皮, 香附子, 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58) 李濟馬는 少陰人의 利小便藥 6개 모두를 이용하여 赤白何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少陰人 藿香正氣散은 종래의 醫家들의 方義가 아닌,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의 기전이 정밀하게 반영되어 만들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處方 分類 기준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본 編制는 處方의 適應證이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의 生理機轉이 정확하게 반영된 處方들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編制 分類 기준은 본 論文의 研究 方法論에 부합하는 編制임을 알 수 있으며, 필자는 본 論文의 研究 方法論에 따라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실린 處方으로 處方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研究를 진행하고자 한다.

3.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과 鬱狂證 治法 分析

1) 少陰人 亡陽證의 定義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의 유형을 크게 亡陽證과 鬱狂證으로 구분하여 대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중 먼저 亡陽證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東醫寶鑑』에 기술된 李梴의 『醫學入門』의 내용 중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故 謂之亡陽”⁵⁹⁾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함으로써, 亡陽證이 증후적으로 ‘汗多不止’로 표현되며 병리적

烏寬中湯을 새롭게 創方하였다. 赤白何烏寬中湯의 구성은 白何首烏, 赤何首烏, 良薑, 乾薑, 青皮, 陳皮, 香附子, 益智仁으로 구성되며, 이는 少陰人의 處方 중에서 利小便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赤白何烏寬中湯을 제외하고 少陰人의 處方 중 利小便藥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處方을 살펴보면 藿香正氣散이 4개로 다음이며, 香砂養胃湯이 3개로 藿香正氣散 다음이다. 따라서 少陰人 利小便藥을 기준으로 분석해볼 때 少陰人 藿香正氣散에 少陰人에 대한 李濟馬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處方으로 파악할 수 있다.

5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李梴醫學入門曰,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故, 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痺寒, 四肢拘急, 桂枝附子湯主之”

으로는 ‘眞陽脫亡’으로서 危證에 해당함을 언급하였다. 李濟馬가 亡陽證에 대해 직접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亡陽證은 表證인 ‘發熱惡寒’에서 시작되는 少陰人 表病⁶⁰⁾ 중 한 가지로서 ‘亡陽’을 의미하는 ‘自汗’으로부터 시작되어 초기부터 이미 險證이고 自汗出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곧 危證에 이르게 되는⁶¹⁾ 매우 危險한 病證이다.⁶²⁾ 따라서 少陰人의 亡陽證은 다른 少陰人 表病과 비교하여 치료하는 데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李濟馬는 『傷寒論』의 내용 중 太陽病과 陽明病의 證狀을 인용함으로써 亡陽證의 證狀을 위중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初證과 中證, 末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1.)⁶³⁾

亡陽證의 단계	證狀
初證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
中證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末證	陽明病 發熱汗多者

표 1. 少陰人 亡陽證의 임상적 경과

6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論曰, 張仲景所論太陽傷風發熱惡寒者, 卽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6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危證也”

62) 少陰人 表病의 유형 중 亡陽證이 鬱狂證에 비해 危證에 해당하는 까닭은 바로 少陰人의 臟腑形局이 기본적으로 脾小한 것과 연관된다.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自汗에 대해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脾不弱也”라고 기술하였는데, 이 명제를 대우로 정리하면 “少陰人이 脾가 弱하면 自汗이 出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鬱狂證은 대체로 自汗이 나지 않는데 비하여(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은 發病 初期부터 곧바로 自汗이 出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脾小한 少陰人이 鬱狂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脾가 취약하여 발생하는 亡陽證이 發病함으로써 發病 初期부터 脾小의 약점이 곧바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少陰人에게 亡陽證에서 발생하는 自汗出은 ‘眞陽脫亡’을 나타내는 위태로운 證狀에 해당한다.

6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이와 함께 李濟馬는 亡陽證의 치료 대책에 대해서 自汗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에 따라 ‘發熱惡寒而有汗者’와 ‘三日連服而汗不止 病不愈則’의 두 가지 병리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發熱惡寒而有汗者’의 단계에는 黃耆桂枝湯·補中益氣湯·升陽益氣湯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三日連服而汗不止 病不愈則’의 단계에는 桂枝附子湯·人參桂枝附子湯·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⁶⁴⁾

亡陽證의 證狀	處方
發熱惡寒而有汗者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汗不止 病不愈則	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표 2. 少陰人 亡陽證의 證狀에 따른 處方

2) 少陰人 鬱狂證의 定義

鬱狂證은 亡陽證과 少陰人 表病의 체계 안에서 서로 대비되며 크게 다른 病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기술하길, 少陰人 表病에서 亡陽證과 鬱狂證은 虛實의 證狀이 완전히 다르며, 表證이 여전히 있을 때부터 病의 진행이 양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고 하였다.⁶⁵⁾ 또한 이어서 鬱狂證은 亡陽證과 달리 表證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病證이 시작됨을 제시하였다.⁶⁶⁾ 따라서 李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6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發熱惡寒而, 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6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胃家實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6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胃家實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太陽病, 表證因在而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濟馬가 기술한 鬱狂證은 表證을 그대로 지닌 채로 發病하며⁶⁷⁾, 自汗이 나오는 亡陽證과는 發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증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鬱狂證과 亡陽證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自汗出의 여부이다. 亡陽證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증후적인 면에서 대체로 自汗出이 있지만, 鬱狂證은 亡陽證과 달리 대체로 自汗出이 있지 않다.⁶⁸⁾ 이러한 鬱狂證과 亡陽證의 증후적인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鬱狂證의 경우 亡陽證과 달리 脾가 弱하지 않다는 점이다.⁶⁹⁾ 또한 脾의 強弱과 더불어 鬱狂證과 亡陽證 중 어떤 證이 전반적으로 危急한 상황인지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鬱狂證이 亡陽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危急한 病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李濟馬가 陰證의 太陰證과 少陰證의 관계로써 鬱狂證과 亡陽證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⁷⁰⁾⁷¹⁾, 그

病證	脾의 強弱	病證의 危急한 정도
鬱狂證	대체로 脾不弱	亡陽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危急하게 진행됨
亡陽證	대체로 脾弱	鬱狂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危急하게 진행됨

표 3.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의 차이점

67) 李濟馬는 『傷寒論』에서 ‘表證因在’를 인용하여 이 證狀이 鬱狂證이 發病할 때 시작되는 證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李濟馬는 鬱狂證의 ‘表證因在’가 의미하는 證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身熱煩腦而惡寒之證’이 간간히 있는 것(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表證因在者, 身熱煩腦而惡寒之證, 間有之也”)으로서 명확히 기술하였다.

6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 自汗出也.”

6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脾不弱也”

7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71) 李濟馬는 陽證의 鬱狂證과 陰證의 太陰證을, 그리고 陽證의 亡陽證과 陰證의 少陰證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陰證의 太陰證은 少陰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危急한 病證이다. 따라서 陰證의 太陰證과 少陰證의 관계와 같이 陽證에서도 鬱狂證이 亡陽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危急한

리고 亡陽證과 少陰證을 鬱狂證과 太陰證과 더불어 따로 구분하여 서술한 후 亡陽證이 시작부터 이미 險證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술한 부분⁷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李濟馬는 鬱狂證에 대해서도 亡陽證과 같이 『傷寒論』의 證狀을 인용하여 鬱狂證의 初證과 中證, 末證에 해당하는 證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표 4.)⁷³⁾

鬱狂證의 단계	證狀
初證	太陽病 表證因在而其人如狂者
中證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
末證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

표 4. 少陰人 鬱狂證의 임상적 경과

그리고 그 치료 대책에 대해 腎陽困熱에는 川芎桂枝湯·黃耆桂枝湯·八物君子湯으로 ‘升補’하는 治法을 제시하였으며,⁷⁴⁾ 大腸怕寒에는 藿香正氣散·香砂養胃湯으로 ‘和解’하는 治法을 제시하였다.⁷⁵⁾ 또한 鬱狂證의 機轉과 證狀을 재차 설명하면서 鬱狂證의 전체적인 治法으로서 ‘益氣而升陽’하는 治法을 다시 제시하였다.⁷⁶⁾

3) 亡陽證 治法 研究의 端緒 -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

病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7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危證也.”
- 7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太陽病, 表證因在而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 7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 7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 7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鬱狂證의 證狀	處方
腎陽困熱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大腸怕寒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표 5. 少陰人 鬱狂證의 證狀에 따른 處方

李濟馬는 鬱狂證의 治法에 대해서 ‘益氣而升陽’이라는 명확한 치료의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亡陽證에 대해서는 鬱狂證과는 달리 명확한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亡陽證의 治法으로서 기존의 研究에서 ‘益氣升陽, 回陽益氣’를 제시하였지만,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을 상세하게 考察해보면 亡陽證의 治法을 연구할 수 있는 端緒를 찾을 수 있다. 그 端緒는 바로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이다. 이 두 處方은 少陰人의 鬱狂證과 亡陽證 모두에 활용된 處方이다.

먼저 黃耆桂枝湯에 대하여 살펴보면, 李濟馬는 亡陽證의 初證인 ‘發熱惡寒而有汗者’의 단계에서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李濟馬는 鬱狂證의 腎陽困熱에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는데, 여기서 黃耆桂枝湯이 少陰人의 亡陽證 뿐만 아니라 鬱狂證에도 모두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李濟馬는 腎陽困熱에 사용하는 處方을 제시한 부분에서 黃耆桂枝湯을 사용하는 목적이 ‘升補’에 있음을 명확히 기술하였다.⁷⁷⁾

다음으로 升陽益氣湯에 대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升陽益氣湯을 앞서 언급한 黃耆桂枝湯과 같이 亡陽證의 初證인 ‘發熱惡寒而有汗者’의 단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鬱狂證에서도 극한 상황에도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도록 하였다.⁷⁸⁾ 그리고 升陽益氣湯

7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7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少陰人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故大黃, 枳實, 厚朴, 芒硝之藥, 亦能成功於此時而劇者, 猶有半生半死, 若用八物君子湯, 升

의 處方名을 살펴보면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목적이 ‘升陽’과 ‘益氣’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處方을 함께 살펴본 결과, 본 論文에서 살펴보게 될 亡陽證과 鬱狂證의 治法이 ‘升補’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鬱狂證에 사용한 處方과 亡陽證에 사용한 處方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鬱狂證의 治法인 ‘升補’와 ‘益氣而升陽’을 亡陽證의 治法으로 바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을 考察함으로써 亡陽證과 鬱狂證의 治法 사이에 일정 부분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鬱狂證의 治法 - ‘益氣而升陽’

본격적으로 處方 비교를 통해 治法을 도출해내기에 앞서, 鬱狂證의 治法에 대해 먼저 考察해볼 필요가 있다. 李濟馬는 鬱狂證의 병리적 상황을 腎陽困熱과 大腸怕寒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腎陽困熱에는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으로 ‘升補’하고,⁷⁹⁾ 大腸怕寒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으로 ‘和解’하여 치료할 것을 주문하였다.⁸⁰⁾ 따라서 鬱狂證의 경우 腎陽困熱과 大腸怕寒이라는 證狀에 따라 각각 ‘升補’와 ‘和解’로 두 가지 治法으로 나뉘게 된다. 본 研究에서는 鬱狂證의 治法을 기준으로 하여 亡陽證의 治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鬱狂證의 治法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어떤 治法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삼아 研究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각각의 상황 별로 두 가지의 治法 중 어느 治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研究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鬱狂證의 두 가지 治法에 대해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한 후 研究를 진행하고자 한다.

陽益氣湯與巴豆丹則雖劇者, 亦無脈弦者生脈瀉者死之理也”

7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8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먼저 鬱狂證의 治法 중 腎陽困熱에 해당하는 治法은 ‘升補’이다. 여기서 ‘升’과 ‘補’를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면⁸¹⁾, ‘升補’의 ‘升’은 ‘升陽’을 나타내고 ‘補’는 ‘補中益氣’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升補’가 鬱狂證 治法의 대개로서 李濟馬가 제시한 ‘益氣而升陽’과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鬱狂證의 治法 중 大腸怕寒에 해당하는 治法은 ‘和解’이다. 여기서 ‘和解’는 기본적으로 ‘益氣而升陽’과 의미를 같이하는 ‘升補’와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鬱狂證에 ‘和解’하는 處方으로 제시된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은 少陰人 表病 뿐만 아니라 裏病인 太陰證 下利清穀에서 ‘溫胃而降陰’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⁸²⁾ 여기서 ‘溫胃而降陰’은 ‘升補’와는 달리 鬱狂證 治法의 대개인 ‘益氣而升陽’과는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⁸³⁾ 그리고 鬱狂證에서 ‘和解’하는 處方과는 달리 ‘升補’하는 處方으로 제시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은 전적으로 少陰人 表病에만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升補’하는 處方이 少陰人 表病的

81) ‘升補’를 ‘升’과 ‘補’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李濟馬가 鬱狂證을 설명한 부분 중 八物君子湯에 대해 ‘峻補’하는 處方으로 제시함으로써 ‘升補’ 가운데 ‘補’만을 따로 떼어서 기술한 부분이다. 본래 八物君子湯은 李濟馬가 ‘升補’하는 處方으로 제시한 것이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하지만 李濟馬는 八物君子湯의 ‘升補’에서 ‘升’을 빼고 ‘補’하는 것을 강조하여 ‘峻補’한다는 표현으로 八物君子湯의 효과를 설명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若外熱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 則當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따라서 李濟馬가 사용한 ‘升補’라는 治法은 ‘升’과 ‘補’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9.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83) 물론 和解하는 處方으로 제시된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 또한 鬱狂證의 治法의 한 가지이므로, 溫胃而降陰하는 작용 또한 최종적으로는 사실 상 ‘益氣而升陽’하는 작용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鬱狂證의 治法인 升補와 비교할 때 溫胃而降陰은 ‘益氣而升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和解하는 治法이 ‘益氣而升陽’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鬱狂證을 치료하는데 더욱 중심적인 治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鬱狂證의 治法 중 ‘升補’와 ‘和解’를 살펴본 결과, ‘升補’하는 治法이 ‘和解’하는 治法에 비해 鬱狂證의 治法으로서 중심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和解’하는 治法은 ‘升補’하는 少陰人의 생리적인 작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證狀들을 보조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활용되는 治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鬱狂證의 治法 중에서 ‘升補’를 중심으로 하여 研究를 진행하고자 한다.

5) ‘益氣’와 ‘升陽’ 治法을 나타내주는 지표약물

지금까지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과 鬱狂證 治法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端緒, 그리고 鬱狂證의 治法에서 ‘升補’가 주가 되며 ‘升補’는 사실상 ‘益氣而升陽’과 동일한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鬱狂證과 亡陽證의 處方을 통해서 亡陽證 治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제 본 論文에서 본격적으로 亡陽證 治法을 도출하기에 앞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李濟馬가 사용한 益氣와 升陽이 실제로 少陰人의 處方 안에 반영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약물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에 사용한 處方 중 升陽과 益氣를 구현하고 있는 지표 약물을 분석해낼 수 있는 處方은 少陰人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者’의 단계에 사용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이다. 이 두 處方은 기본적으로 李濟馬의 少陰人 處方 편제 중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실린 處方으로서, 李濟馬가 생각한 少陰人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處方들이다. 또한 이 두 處方은 處方名에 공통적으로 ‘益氣’가 들어있고 補中과 升陽이 각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處方을 비교함으로써 李濟馬가 益氣와 補中 및 升陽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약물들 중 지표 약물을 분석해낼 수 있다.

우선적으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을 구성하는

약물들을 비교하여 공통되는 약물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李濟馬가 少陰人에게서 益氣하는 작용으로 사용한 지표 약물들을 도출할 수 있다. 補中益氣湯⁸⁴⁾과 升陽益氣湯⁸⁵⁾에서 공통되는 약물들은 분석해보면 人蔘, 黃芪, 炙甘草, 當歸, 生薑, 大棗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약물들에 의해 李濟馬가 少陰人에게 사용했던 ‘益氣’의 작용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人蔘과 黃芪가 ‘益氣’하는 약물들의 중심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人蔘과 黃耆 및 그 외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의 공통된 약물들을 통하여 李濟馬의 益氣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약물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을 구성하는 약물을 비교하여 공통되는 약물들을 제외하고 각각의 處方에 해당하는 약물들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李濟馬가 少陰人에게 補中하는 작용과 升陽하는 작용으로 사용한 지표 약물들을 도출할 수 있다. 補中益氣湯에는 포함되지만 升陽益氣湯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들을 분석해보면 白朮, 陳皮, 藿香, 蘇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약물들에 의해 ‘補中’의 의미가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升陽益氣湯에는 포함되지만 補中益氣湯에는 포함되지 않는 약물들을 분석해보면 桂枝, 白芍藥, 白何首烏, 官桂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약물들에 의해 李濟馬가 少陰人에게 사용했던 升陽의 작용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약물 중 官桂와 白何首烏는 少陰人 表病보다 주로 裏病에 활용되는 약물들이므로 表病에서 활용되는 升陽 治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순히 白何首烏와 官桂가 裏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두 약물을 表病의 升陽 治法을 논하는 데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白何首烏는 少陰人 表病 處方인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

8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補中益氣湯, 人蔘, 黃芪, 各三錢, 甘草炙, 白朮, 當歸, 陳皮, 各一錢, 藿香, 蘇葉, 各三分, 或五分, 薑, 三片, 棗, 二枚”

8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湯,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炙,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에 활용되고, 官桂는 升陽益氣湯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少陰人 裏病의 處方 중 중심적인 處方에 해당하는 白何烏理中湯과 官桂附子理中湯, 赤白何烏寬中湯 등에 대체로 官桂와 白何首烏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 少陰人 表病의 중심 약물이거나 보다는 裏病의 중심 약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서 升陽을 구현하는 지표 약물 네 가지 중에서 官桂와 白何首烏를 제외하면 桂枝와 白芍藥만이 남는데, 이 약물들과 升陽益氣湯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약물인 炙甘草, 生薑, 大棗를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 桂枝湯의 구성과 동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桂枝湯이 바로 李濟馬의 升陽 治法을 處方的 관점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李濟馬 스스로 鬱狂證 腎陽困熱에 ‘升補’를 목적으로 制方한 處方 가운데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이 桂枝湯을 모방으로 하여 구성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升補’하는 治法의 ‘升’은 ‘升陽’을 의미하는데, 이 중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이 桂枝湯을 모방으로 한 것은 실제로 桂枝湯이 升陽하는 작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李濟馬가 ‘升補’를 목적으로 制方한 處方 중 八物君子湯의 경우는 桂枝湯의 方劑 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八物君子湯⁸⁶⁾에는 桂枝湯의 구성 약물 중 桂枝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桂枝湯의 구성 약물 중 白芍藥 또한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에서 사용하던 二錢에서 一錢으로 그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升陽’하는 治法과 桂枝湯간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八物君子湯에 단순히 桂枝가 제외되었다고 하여 升陽하는 治法과 桂枝湯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李濟馬는 八物君子湯에 대하여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과는 달리 ‘峻補’⁸⁷⁾하는 處方으로 별도로 기술하

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八物君子湯의 경우에도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과 같이 鬱狂證 腎陽困熱에 升補하는 處方이지만, 기본적으로 升陽보다 益氣하는 治法 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八物君子湯의 약물 구성을 생각해 보면,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升陽을 구현하는 지표 약물이 줄어들고, 반대로 益氣를 구현하는 지표 약물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八物君子湯의 약물 구성을 파악해 보면, 八物君子湯에서 桂枝가 제외되고 白芍藥의 용량이 줄어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李濟馬의 八物君子湯은 『東醫寶鑑』⁸⁸⁾에 기재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⁸⁹⁾의 약물 중 升麻와 柴胡를 제외한 모든 약물을 포함하고 있다.⁹⁰⁾ 이 점 또한 八物君子湯이 ‘升陽’하는 治法보다 상대적으로 ‘益氣’하는 治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 지금까지 考察한 내용을 정리하면, 李濟馬가 사용한 處方 안에서 益氣하는 治法이 구현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약물은 人蔘, 黃芪, 炙甘草, 當歸, 生薑, 大棗이며, 이 중에서도 人蔘과 黃耆가 중심이 된다. 또한 補中하는 治法이 구현된 것을 판단하는

遺患之弊則常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88)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東醫寶鑑』을 통해 醫道가 다시 興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許浚, 具備傳之, 著東醫寶鑑, 醫道復興.”), 許浚을 최고의 名醫로 꼽았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若以醫家勤勞功業, 論之則當以張仲景, 朱肱, 許浚爲首, 而李梴, 龔信, 次之.”)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東醫寶鑑』에 실린 補中益氣湯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89)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1212.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當歸, 陳皮,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東垣).”

90) 升麻와 柴胡는 앞서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의 분류 기준을 논하면서 李濟馬가 少陰人의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제외된 약물임을 밝혔다. 따라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創方한 八物君子湯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구성 약물 중 少陰人에게 적합한 약물을 모두 포함한 處方임을 알 수 있다.

8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8. “八物君子湯, 人蔘, 二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8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若外熱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

지표약물은 白朮, 陳皮, 藿香, 蘇葉이다. 그리고 마지막으 升陽하는 治法이 구현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약물은 桂枝와 芍藥이며, 處方으로는 桂枝湯이 된다.

6) 亡陽證 處方 분석

이상 考察한 내용을 바탕으로 李濟馬가 亡陽證에 사용한 處方들을 분석해보면 亡陽證의 治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李濟馬가 少陰人 處方에서 益氣와 補中, 升陽 治法을 적용하였을 때 포함된 지표 약물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少陰人의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들을 분석함으로써 處方 안에 어떠한 지표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處方이 내포하고 있는 治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李濟馬가 사용한 亡陽證 處方들을 통해 亡陽證의 治法을 분석해보면, 亡陽證 또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而升陽하는 治法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서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⁹¹⁾ 이 세 處方을 분석해보면, 우선 黃耆桂枝湯은 앞서 논술했던 바와 같이 鬱狂證의 腎陽困熱에서 명확하게 ‘升補’하는 處方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升補’는 ‘益氣而升陽’과 같은 의미였다. 따라서 黃耆桂枝湯의 方義를 통해 少陰人 亡陽證의 治法 또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而升陽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한 升陽益氣湯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증명되는데, 升陽益氣湯은 處方名 그대로 處方의 목적이 ‘升陽’과 ‘益氣’에 있다. 따라서 앞서 黃耆桂枝湯을 사용한 목표와 같이 ‘益氣而升陽’하는 治法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補中益氣湯의 경우에는 處方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黃耆桂枝湯, 升陽益氣湯과는 달리 ‘益氣’는 하지만 ‘升陽’을 하지는 않는 處方이다. 따

라서 補中益氣湯의 경우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하는 다른 處方과 같이 益氣而升陽하는 治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亡陽證 處方 분석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한다.

한편, 다음으로 少陰人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하는 단계가 더욱 진행되어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이른 경우 李濟馬는 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⁹²⁾ 이 세 處方 중 가장 분석하기 쉬운 升陽益氣附子湯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升陽益氣附子湯⁹³⁾은 앞서 ‘發熱惡寒而有汗’하는 단계에 사용되던 升陽益氣湯에 炮附子를 一錢 혹은 二錢이 더한 處方이다. 따라서 升陽益氣附子湯은 升陽益氣湯의 方義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炮附子の 작용을 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升陽益氣附子湯의 경우에도 升陽益氣湯과 마찬가지로 益氣而升陽하는 治法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附子の 작용이 더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된 人參桂枝附子湯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人參桂枝附子湯은 桂枝附子湯에 人參, 黃芪, 當歸가 더해진 處方이다. 이 중 桂枝附子湯은 桂枝湯에 附子가 더해진 處方이다.⁹⁴⁾ 따라서 人參桂枝附子湯에 포함된 桂枝湯을 통해 升陽하는 治法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附子の 작용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人參桂枝附子湯에 사용된 人參과 黃耆, 當歸는 모두 益氣하는 治法이 반영된 것을 나타내는 지표 약물이다. 그리고 益氣 治法을

9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當用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9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湯, 人參,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升陽益氣附子湯, 人參, 桂枝,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附子炮, 一錢, 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94) 『東醫壽世保元』의 桂枝附子湯은 『傷寒論』의 桂枝加附子湯의 구성과 같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 기재된 桂枝附子湯의 약물 구성은 桂枝湯과 附子로 구성된다.

9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나타내는 지표 약물 중 중심 약물에 해당하는 人蔘과 黃耆가 人蔘桂枝附子湯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人蔘의 경우 다른 亡陽證 處方에 사용된 人蔘의 양에 비해 많은 양은 四錢이나 사용되어 있다. 따라서 人蔘桂枝附子湯에도 益氣하는 治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李濟馬가 峻補하는 處方으로 제시한 八物君子湯과 人蔘桂枝附子湯을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人蔘桂枝附子湯과 八物君子湯의 약물 구성을 비교해보면, 人蔘桂枝附子湯은 八物君子湯에서 白朮, 川芎, 陳皮가 제외되고 桂枝 三錢이 더해졌으며, 무엇보다 人蔘이 八物君子湯의 二錢의 배인 四錢이 사용된 處方이다.⁹⁵⁾ 이는 人蔘桂枝附子湯에 益氣의 중심 약물인 人蔘이 八物君子湯의 益氣하는 작용에 결코 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李濟馬는 亡陽證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었을 때 人蔘을 매우 중요한 약물로 인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李濟馬가 직접 기술한 亡陽證 治驗例에서 人蔘을 무려 五錢이나 사용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⁹⁶⁾⁹⁷⁾ 뿐만 아니라 좋은 人蔘 一兩을 사용하여 傷寒 壞證을 치료한 朱丹溪의 治驗例를 특필한 사례⁹⁸⁾⁹⁹⁾나, 人蔘의 효능에 대해 白何首烏와 비교하면서 白何首烏의 ‘溫補之

力’에 비해 ‘清越之力’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였고¹⁰⁰⁾ 人蔘이 있을 때에는 人蔘을 쓰며 人蔘이 없을 때 白何首烏를 쓴다¹⁰¹⁾고 한 부분에서도 李濟馬가 少陰人에게 있어 人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人蔘을 李濟馬가 人蔘桂枝附子湯에서 八物君子湯에 사용한 양의 배 이상을 사용한 것은, 八物君子湯의 峻補하는 작용과 質의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補하는 힘에 있어서만큼은 그에 밀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人蔘桂枝附子湯에도 益氣하는 治法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人蔘桂枝附子湯은 升陽하는 治法과 益氣하는 治法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附子の 작용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하는 處方인 桂枝附子湯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桂枝附子湯은 處方名이 桂枝附子湯이지만, 실제 處方 구성을 살펴보면 桂枝湯에 附子가 더해진 것으로 『傷寒論』에 입각해서 볼 때 桂枝附子湯¹⁰²⁾이 아니라 桂枝加附子湯¹⁰³⁾에 해당한다. 이렇게 실제 약물 구성과 달리 處方名이 정해진 이유는 李濟馬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李梴의 『醫學入門』 處方인 桂枝附子湯¹⁰⁴⁾을 인용하여 處方名과 약물 구성 그대로

95) 少陰人 亡陽證 治驗例에서 사용한 人蔘의 양은 五錢으로, 사실 상 八物君子湯에 들어간 人蔘의 두 배 이상이 人蔘桂枝附子湯에 사용되었다.
9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5. “其翌日, 又用人蔘桂枝附子湯人蔘五錢附子二煎三貼, 食粥二匙, 每用藥後則身清涼無汗, 小便稍多而大便必通”
97) 이 治驗例는 李濟馬가 人蔘桂枝附子湯에 人蔘을 五錢으로 增量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본 단락에서 人蔘桂枝附子湯에 관해 논술하는 내용과 맥락 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傷寒壞證, 昏沈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水煎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99) 少陽人의 石膏는 少陰人의 人蔘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李濟馬가 少陽人 傷寒의 熱多寒少病에서 陽毒發斑으로 이미 風이 動해 감에 주저 없이 石膏 一斤을 사용한 治驗例를 들 수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8. “其後, 又有少陽人一人, 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 教服雞肉湯, 仍成陽毒發斑... 已有動風之漸, 而耳聾語謔, 舌上白胎, 藥囊祇有石膏, 一斤, 滑石, 一兩, 而無他藥”)

10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清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10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有人蔘, 則用人蔘, 無人蔘, 則用白何首烏”
102) 文濬典 외 6인.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p.361. “傷寒八九日, 風濕相搏, 身體疼煩, 不能自轉側, 不嘔不渴, 脈浮虛而澁者, 桂枝附子湯主之. 若其人大便硬, 小便自利者, 去桂加白朮湯主之.”, “桂枝附子湯 桂枝(四兩去皮) 附子(三枚炮去皮破)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甘草(二兩炙) 右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103) 文濬典 외 6인.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p.86.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桂枝加附子湯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甘草(三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右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本云桂枝湯, 今加附子, 將息如前法.”
104)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57. “桂枝附子湯, 治傷寒發汗過多, 陰漏不止, 四肢(肢)拘急, 難以屈伸, 桂枝·附子炮各三錢, 白芍藥二錢, 甘草炙一錢. 右剉, 作一貼, 薑五片, 棗二枚, 水煎服之. 『入門』”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 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편제에 기재하였기 때문이다.¹⁰⁵⁾ 따라서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桂枝附子湯은 桂枝加附子湯의 구성임을 확실히 하고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李濟馬는 少陰人에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확실한 處方으로 桂枝湯을 지목하였다.¹⁰⁶⁾ 그리하여 桂枝湯을 기본으로 黃耆桂枝湯, 升陽益氣湯,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으로 處方을 확장함으로써 亡陽證 處方을 운용하였다. 이 중 桂枝附子湯은 桂枝湯에 附子 三錢이 더해진 處方으로써, 附子の 양이 다른 亡陽證 處方에 비해 多量에 해당한다. 실제로 ‘新定 少陰人 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실린 亡陽證 處方들에 사용된 附子の 양이 대부분 一錢或二錢에 그친 데 비해 桂枝附子湯은 附子가 三錢으로써 가장 많은 분량이 사용되었다.¹⁰⁷⁾ 하지만 이에 반해 다른 亡陽證 處方과 비교해 人蔘과 黃芪 등의 약물이 빠져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桂枝附子湯은 亡陽 末證에 附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桂枝附子湯의 方劑 구성은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하는 다른 處方들, 즉 人蔘桂枝附子湯과 升陽益氣附子湯의 方劑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⁸⁾ 따라서 桂枝附

子湯의 方義가 人蔘桂枝附子湯과 升陽益氣附子湯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桂枝附子湯은 亡陽證의 마지막 단계인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서 附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을 나타내는 處方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亡陽證 處方에 대한 考察을 정리하면, 亡陽證에 활용된 處方들은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益氣而升陽을 기본 治法으로 하여 제시된 處方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를 미뤄두었던 補中益氣湯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補中益氣湯과 함께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된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을 살펴보면, 黃耆桂枝湯의 구성 약물은 升陽益氣湯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補中益氣湯의 구성 약물은 升陽益氣湯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이는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 내에서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이 補中益氣湯과는 다소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補中益氣湯을 제외하고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와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된 處方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桂枝湯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補中益氣湯의 경우 桂枝湯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亡陽證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도 補中益氣湯이 亡陽證의 맥락에서 중심적인 맥락이 아닌 다소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 處方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서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로 亡陽證이 진행될 때에도 升陽益氣湯은 升陽益氣附子湯

10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4. “此方, 出於李樞醫學入門書中, 治汗漏不止, 四肢拘急, 難以屈伸”

10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

107) 실제로 亡陽證 處方 중 附子가 가장 많이 사용된 處方은 人蔘官桂附子湯이며, 최대 二錢五分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桂枝附子湯이 亡陽證 處方 중 附子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人蔘官桂附子湯, 人蔘, 五錢, 或一兩, 官桂, 黃芪, 各三錢, 白芍藥, 二錢, 當歸, 甘草炙, 各一錢, 附子炮, 二錢, 或二錢五分, 薑, 三片, 棗, 二枚”)

10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4. “桂枝附子湯, 附子炮, 桂枝, 各三錢, 白芍藥, 二錢, 甘草炙, 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人蔘桂枝附子湯, 人蔘, 四錢, 桂枝, 三錢,

白芍藥, 黃芪, 各二錢, 當歸, 甘草炙, 各一錢, 附子炮, 一錢, 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附子湯,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炙, 各一錢, 附子炮, 一錢, 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109) 補中益氣湯의 白朮과 陳皮 등은 益氣의 개념으로서 이해해볼 수 있다. 하지만 藿香과 蘇葉은 여타의 亡陽證 處方에 포함된 약물 구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藿香, 蘇葉은 少陰人 藿香正氣散의 구성 약물 중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데, 藿香正氣散은 鬱狂證의 大腸怕寒과 少陰人 裏病의 太陰證 下利清穀에 사용한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의 구성과 여타의 亡陽證 處方의 맥락을 동일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으로 그 맥락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補中益氣湯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의 경우는 亡陽證 處方 전체와 비교할 때 약간은 다른 맥락으로 진행된 處方임을 알 수 있으며, 補中益氣湯으로서 亡陽證 處方的 전체적인 治法을 논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補中益氣湯의 경우 益氣而升陽 중 益氣하는 治法만이 반영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亡陽證에 사용된 處方들은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而升陽 治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7) 鬱狂證 治法の 특징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李濟馬가 제시한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은 모두 공통적으로 益氣而升陽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鬱狂證과 亡陽證은 李濟馬 스스로 엄연히 갈래가 다른 病證임을 명확히 밝힌 것과 같이 治法 상의 공통점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論文에서는 지금부터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 간의 차이를 정밀하게 考察해보고자 한다.

李濟馬가 제시한 鬱狂證의 腎陽困熱에 사용하는 處方은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으로서 모두 '升補'하는 處方에 해당한다. 하지만 李濟馬가 나열한 순서대로 川芎桂枝湯에서 黃耆桂枝湯, 그리고 八物君子湯으로 갈수록 점차 升陽에서 益氣로 治法の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升補'라는 말 그대로 '升'에서 '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은 桂枝湯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處方이다. 따라서 桂枝湯에 더해진 약물들을 중심으로 두 處方을 비교해보면, 川芎桂枝湯에는 川芎, 蒼朮, 陳皮가 더해졌고 黃耆桂枝湯에는 黃芪, 白何首烏, 當歸가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處方에 더해진 약물들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川芎桂枝湯에 비해 黃耆桂枝湯의 益氣하는 힘 더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黃耆桂枝湯에 더해진 黃耆는 앞서 人蔘과 함께 益

氣를 구현하는 중심적인 지표 약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黃耆桂枝湯에 더해진 白何首烏는 人蔘의 補하는 약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李濟馬 스스로 人蔘과 代用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人蔘과 같이 '益氣'의 힘이 넉넉함을 알 수 있다.¹¹⁰⁾ 따라서 기본적으로 黃耆桂枝湯에 더해진 약물들 모두 益氣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川芎桂枝湯에 더해진 川芎, 蒼朮, 陳皮에 대해 살펴보면, 유일하게 陳皮가 補中에 해당하는 지표 약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益氣하는 힘이 黃耆桂枝湯에 비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¹¹¹⁾ 결론적으로 川芎桂枝湯에서 黃耆桂枝湯으로 진행됨에 따라 益氣하는 작용이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黃耆桂枝湯과 八物君子湯에 대해 살펴보면, 八物君子湯은 黃耆桂枝湯에 포함된 桂枝湯 중에서 桂枝가 빠지고 白芍藥이 二錢에서 一錢으로 減量되었다. 따라서 升陽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桂枝湯의 구성 약물이 감소함에 따라 八物君子湯의 升陽하는 작용이 경감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八物君子湯에 黃耆桂枝湯의 白何首烏가 빠지고, 黃耆도 二錢에서 一錢으로 경감되어 사용되었지만, 人蔘이 二錢 더해졌다. 이를 정리하면, 黃耆桂枝湯의 黃耆 一錢, 白何首烏 一錢이 줄어들고 人蔘이 二錢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人蔘은 黃耆와 白何首烏보다 益氣하는 힘이 매우 강한 약물이다. 따라서 사실 상 黃耆桂枝湯에서 八物君子湯으로 넘어오면서 升陽하는 작용은 줄어들었지만, 益氣하는 작용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鬱狂證의 腎陽困熱에 사용하는 다른 處方들과 달리 李濟馬 스스로 별도로 八物君子湯을 '峻補'하는 處方으로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10) 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清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險病, 危證, 人蔘, 二錢以上, 不可全恃, 白何首烏代用”

111) 川芎桂枝湯에 더해진 川芎, 蒼朮, 陳皮 중 陳皮가 실령 黃耆에 준할 정도의 益氣하는 힘을 지녔다 할지라도 黃耆桂枝湯의 益氣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왜냐하면 川芎桂枝湯의 陳皮는 一錢이 사용되었지만 黃耆桂枝湯의 黃耆는 二錢이 사용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黃耆 외에도 白何首烏 一錢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李濟馬는 鬱狂 未證이 더욱 진행되었을 경우 巴豆 全粒을 쓰고 혹은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을 一兩을 추가한 獨蔘八物君子湯을 쓰거나, 혹은 巴豆를 먼저 쓴 후에 八物君子湯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¹¹²⁾ 이것은 人蔘이 二錢 사용된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이 一兩 사용된 獨蔘八物君子湯을 사용하는 것으로 鬱狂證이 未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보다 益氣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을 考察한 결과 鬱狂證에서는 未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에서 益氣로 그 治法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鬱狂證이 未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보다 益氣하는 治法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李濟馬가 金元名家의 다양한 治驗例를 통해 鬱狂證 치료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鬱狂證을 치료하기 위해 結實을 기다린 후 承氣의 下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李濟馬는 少陰人의 체질적 특성을 간과하여 下法이 아닌 ‘益氣’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李濟馬는 許叔微 『本事方』의 醫案 중 大承氣湯보다 약력이 弱한 小承氣湯을 사용하여 鬱狂證을 치료한 예를 인용하였다.¹¹³⁾ 이를 통해 李濟馬는 大承氣湯보다 瀉下하는 작용이 약한 小承氣湯으로 鬱狂證을 치료함으로써, 鬱狂證이 본래 陽氣가 實하여 발생한 證狀이 아니라 虛해서 발생한 證狀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李濟馬는 王好古 『海藏書』의 醫案에서 傷寒發狂에 柴胡湯을 쓰고 악화된 病證을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 등의 약물로써 치료한 예를 인용하였다.¹¹⁴⁾ 여기서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 등의 약물들은 ‘益氣’에 해당하는 약물들로서, 앞서 『本事方』의 醫案에서 瀉下하는 處方의 약력을 줄여서 사용한 것과 달리 『海藏書』의 醫案은 적극적인 의미로 益氣하는 治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李濟馬는 少陰人 鬱狂證이 명확히 陽氣가 虛하여 발생하는 病證이며, 구체적인 治法으로서 ‘益氣’를 위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李濟馬는 成無己 『明理論』에서 潮熱이 있는 경우에만 下法을 사용하도록 한 예¹¹⁵⁾와 朱震亨 『丹溪心法』에서 傷寒 壞證으로 거의 죽게 된 경우에 좋은 人蔘 一兩을 한 번에 복용하여 땀이 콧마루에서부터 나오되 물과 같이 뚝뚝 떨어진 예¹¹⁶⁾를 인용함으로써 鬱狂證의 마지막 단계에서 張仲景이 承氣湯을 쓴 것과 정반대로 人蔘 一兩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本事方』과 『海藏書』에서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 治法인 益氣가 가장 적극적으로 극대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이를 통해 李濟馬는 鬱狂證이 未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에 주력하였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¹¹⁷⁾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본 論文에서 考察한 少陰人 鬱狂證 治驗例의 引用文들은 李濟馬가 인용한 부분 전체에서 『醫學綱目』의 내용을 생략하

敷, 用柴胡湯反劇, 以蔘芪歸朮陳皮甘草, 煎湯一服, 狂定, 再服, 安睡而愈”

11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成無己明理論曰,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手足濇然微汗出者, 此大便已硬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11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朱震亨丹溪心法曰, 傷寒壞證, 昏沈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水煎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117) 실제로 李濟馬는 朱丹溪의 鬱狂證 治驗例에서 좋은 人蔘 一兩을 사용하는 治驗例에 이어서 기술한 내용을 통해 朱丹溪의 益氣하는 治法을 少陰人의 鬱狂 未證의 치료에 그대로 반영하여 응용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大承氣湯, 始作備而可用不可用之候, 難知…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 以壓之”) 이는 鬱狂 未證에 사용하는 獨蔘八物君子湯에서 八物君子湯의 人蔘 二錢을 一兩으로 増量하여 사용하도록 주문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以壓之.”

11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許叔微本事方曰, 一人, 病傷寒, 大便不利,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諸醫皆走, 此誠惡候, 仲景, 雖有證而無法, 但脈弦者生, 脈澁者死, 謾且救之, 與小承氣湯, 一服而大便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

11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王好古海藏書曰, 一人, 傷寒發狂欲走, 脈虛

여 考察한 것이다. 생략된 『醫學綱目』의 醫案 내용은 循衣摸床하는 사람 여러 명에게 氣血을 大補하는 藥을 썼더니 그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나고 代脈이 나오는 證을 겸하여서 補劑 중에 桂枝를 조금 가하여¹¹⁸⁾ 다스리니 또한 눈의 경련이 멎고 脈이 和하여지고 代脈이 없어지면서 나왔다¹¹⁹⁾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 등을 통해 發狂病을 치료한 王好古 『海藏書』의 인용문 뒤에 李濟馬가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醫學綱目』의 醫案에서 사용한 氣血을 大補하는 藥은 『海藏書』의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와 맥을 같이 하여 益氣하는 治法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大補하는 藥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였다는 내용은 ‘益氣’하는 治法이 鬱狂證의 가장 중심적인 治法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氣血을 大補하는 藥으로 치료되지 않은 오직 한 사람은 鬱狂證 환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李濟馬는 이러한 일부의 鬱狂證 환자의 경우 代脈과 같이 脈象이 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조금의 桂枝를 사용하는 것은 益氣하는 治法과 더불어 약간의 ‘升陽’하는 治法을 겸하여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⁰⁾¹²¹⁾ 이상의 少

陰人 鬱狂證 관련 인용문들을 考察해본 결과, 鬱狂證은 기본적으로 益氣하는 治法을 중심으로 삼으며, 약간의 桂枝를 가하는 것을 통해 升陽하는 治法을 보조적으로 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鬱狂 末證에 좋은 人蔘 一兩을 사용한 治驗例를 통해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하는 治法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鬱狂證의 경우 末證으로 진행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진행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鬱狂 末證으로 진행되면서 升陽이 약화되고 益氣가 강화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升陽하는 治法이 계속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李濟馬가 鬱狂證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였고, 본 論文에서 상세히 다룬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李濟馬는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크게 八物君子湯, 獨蔘八物君子湯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李濟馬는 鬱狂證의 治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金元 名家들의 治驗例를 모두 인용한 후, 이 證에 巴豆 全粒을 쓰고 혹 獨蔘八物君子湯을 사용하거나, 혹은 巴豆를 먼저 쓴 후 八物君子湯을 사용하도록 하였다.¹²²⁾ 따라서 獨蔘八物君子湯과 八物君子湯은 비슷한 證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서 하나의 계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118) 李濟馬가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내용 중 ‘略加桂’에 대하여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550.’에서는 ‘보제 중에 桂枝官桂를 가하여’라고 하였다. 본 論文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본다면 ‘보제 중에 桂枝를 조금 가하여’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1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醫學綱目曰, 嘗治循衣摸床者數人, 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購振脈代, 遂於補劑中, 略加桂, 亦振脈和而愈.”

120)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王好古 『海藏書』와 『醫學綱目』의 引用文은 기술 순서와 내용 모두 그대로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다.(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56. : 12-8 “陽明虛證宜補 ① 一人傷寒, 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反劇. 以蔘芪, 歸朮, 陳皮, 甘草煎湯, 一服狂定, 再服安睡而愈. [海藏] ② 嘗治循衣摸床者, 數人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購振脈代, 遂於補劑中略加桂, 亦振脈和而愈. [綱目]”) 따라서 李濟馬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한다면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저자인 許浚의 생각에 동의하여 해당부분을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少陰人 鬱狂證에 引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1) 이것은 실제로 李濟馬가 사용한 處方에도 그대로 반영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李濟馬는 鬱狂證의 腎陽因熱 處方으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處方들에 모두 桂枝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李濟馬가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과 함께 腎陽因熱에 사용한 八物君子湯의 경우 桂枝가 處方 구성에서 빠져있지만, 앞서 王好古의 『海藏書』에서 언급된 약물들인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에 속하지 않으면서 桂枝湯의 구성약물에는 속하는 芍藥, 生薑, 大棗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八物君子湯에도 桂枝湯의 脈을 和하게 하는 작용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가 기술한 『醫學綱目』의 醫案에서 약간의 桂枝를 가하는 것은 鬱狂證 중 일부의 경우 ‘益氣’하는 治法을 주로 하되 보조적으로 升陽하는 治法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大承氣湯, 始作備而可用不可用之候, 難知…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 以壓之.”

있으며, 이것은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升陽이 약화되고 益氣가 강조된 處方이다.

하지만 이 내용 뿐만 아니라 李濟馬는 大承氣湯의 適應證 및 극렬한 證에 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과 巴豆丹을 사용하도록 주문한 내용도 있다.¹²³⁾ 그리고 이어서 溫補, 升陽하는 약과 巴豆라고 기술하였는데,¹²⁴⁾ 이것은 八物君子湯이 溫補에 해당하며 升陽益氣湯은 升陽, 그리고 巴豆丹을 과두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될 경우 升陽이 약화되고 益氣가 강조되는 處方 운용, 예컨대 八物君子湯과 獨蓼八物君子湯과 같은 處方 운용 뿐만 아니라 鬱狂證 腎陽困熱에 사용하는 黃耆桂枝湯에서 八物君子湯이 아닌 升陽益氣湯으로 진행되면서 升陽이 유지되고 益氣하는 작용이 강해지는 處方 운용도 있음을 의미한다.¹²⁵⁾

이상의 내용을 통해 鬱狂證 治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鬱狂證의 治法의 주된 맥락은 益氣와 升陽을 기본으로 하되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하는 治法이 강화되고 升陽하는 治法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鬱狂證 治法의 중심 맥락과는 다른 부가적인 맥락으로서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益氣를 강화하는 鬱狂證 治法도 있다.

8) 亡陽證 治法의 특징

鬱狂證에 이어 亡陽證 治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亡陽證 治法의 첫 번째 특징은 亡陽證이 初證에서 末證으로 진행되어도 鬱狂證과 같이

升陽하는 治法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亡陽證의 경우 李濟馬는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서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였지만,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로 病證이 진행된 경우 黃耆桂枝湯과 補中益氣湯을 빼고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亡陽證의 病證이 진행됨에 따라 升陽益氣湯은 계속 사용되고, 黃耆桂枝湯과 補中益氣湯이 亡陽證 處方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亡陽證 治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耆桂枝湯의 方義는 사실 상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에 사용되는 升陽益氣附子湯과 人蔘桂枝附子湯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黃耆桂枝湯의 구성 약물은 모두 升陽益氣附子湯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⁶⁾ 따라서 升陽益氣附子湯에 黃耆桂枝湯의 方義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黃耆桂枝湯은 人蔘桂枝附子湯에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黃耆桂枝湯과 人蔘桂枝附子湯의 약물 구성을 분석해보면 黃耆桂枝湯의 구성 약물 중 人蔘桂枝附子湯에 포함되지 않는 약물은 白何首烏 一錢 뿐이다. 여기서 白何首烏 一錢이 人蔘桂枝附子湯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黃耆桂枝湯의 方義가 人蔘桂枝附子湯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人蔘桂枝附子湯에는 白何首烏보다 보하는 힘이 더욱 강한 人蔘이 무려 四錢이나 들어있다. 그러므로 李濟馬는 黃耆桂枝湯에서 사용한 白何首烏의 작용을 더욱 강화하여 人蔘桂枝附子湯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發

12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劇者, 猶有半生半死, 若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與巴豆丹則雖劇者, 亦無脈弦者生脈瀉者死之理也”

12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又太陽病表證因在時, 何不早用溫補升陽之藥與巴豆, 預圖其病而必待陽明病日晡發潮熱狂言時用承氣湯, 使人半生半死耶”

125) 여기서 筆者는 함께 기술된 八物君子湯과 升陽益氣湯과는 달리 巴豆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鬱狂證의 ‘升補’와 ‘和解’에 관한 治法을 논한 부분에서 大腸怕寒을 치료하는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의 和解之劑를 鬱狂證을 치료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處方으로 간주하여 治法을 논할 때 제외한 것과 같은 것임을 밝힌다.

126)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附子湯은 단순히 약물 구성 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한 용량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桂枝의 용량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黃耆桂枝湯에서는 桂枝 三錢이 사용되었지만 升陽益氣附子湯에서는 桂枝가 二錢으로 감량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升陽益氣附子湯에서는 桂枝의 양이 一錢 줄어든 대신 桂枝와 기원이 같은 官桂가 一錢 더해졌으며, 이와 함께 附子도 함께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黃耆桂枝湯의 升陽하는 뜻을 거의 그대로 升陽益氣附子湯에 반영하였으며, 升陽益氣附子湯으로 오면서 더욱 升陽하는 작용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하는 黃耆桂枝湯의 方義는 亡陽證이 더욱 진행된 단계인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의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黃耆桂枝湯과 함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하는 升陽益氣湯도 亡陽證이 더욱 진행된 단계인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升陽益氣附子湯으로서 그 方義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補中益氣湯은 黃耆桂枝湯, 升陽益氣湯과는 달리 그 方義가 亡陽證이 末證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¹²⁷⁾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하는 處方들을 考察함으로써 亡陽證 治法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考察에 앞서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升陽益氣湯은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되는 升陽益氣附子湯으로 온전히 이어지는 亡陽證의 중심적인 處方으로서 黃耆桂枝湯의 구성 약물 모두가 升陽益氣湯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黃耆桂枝湯은 논의에서 차치하고, 대표적으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의 구성 약물을 비교해보면, 補中益氣湯에는 人蔘과 黃耆가 각각 三錢씩 사용되었고 升陽益氣湯에는 人蔘과 黃耆의 양이 각각 二錢씩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補中益氣湯의 益氣하는 힘이 升陽益氣湯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升陽益氣湯에는 桂枝 二錢, 官桂 一錢이 포함되어 있고, 補中益氣湯에는 桂枝와 官桂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升陽益氣湯의 升陽하는 힘이 補中益氣湯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李濟馬는 亡陽證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補中益氣湯을 제외하고 升陽益氣湯을 중심으로 處方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亡陽證의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한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모두 升陽을 의미하는 桂枝湯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점은 亡陽證이 初證에서 末證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升陽하는 治法이 악화되지 않고 줄곧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되면 桂枝가 處方에서 제외되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亡陽證 또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하는 治法이 강화된다.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한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중 중심 맥락에 해당하는 升陽益氣湯에는 人蔘과 黃耆가 각각 二錢씩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黃耆桂枝湯, 升陽益氣湯과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 補中益氣湯의 경우 人蔘과 黃耆가 각각 三錢씩 사용되었다. 따라서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기본적으로 사용된 人蔘과 黃耆의 양은 二錢이며, 최대 三錢씩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亡陽證의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되는 處方을 살펴보면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중 升陽益氣附子湯에는 앞서 升陽益氣湯과 같이 人蔘과 黃耆가 각각 二錢씩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人蔘桂枝附子湯의 경우 人蔘이 四錢, 黃耆가 二錢이 사용되어 있으며 治驗例에서는 무려 五錢이 사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亡陽危病藥으로 기술한 네 處方들¹²⁸⁾ 중에 人蔘官桂附子湯이 포함되어 있는데, 人蔘官桂附子湯에 사용된 人蔘의 양은 五錢或一兩이며 黃耆의 양은 三錢이다.¹²⁹⁾ 이를 정리하면, 亡陽 末證에 사용되는 人蔘의 양은 최소 二錢에서 최대 一兩, 黃耆의 양은 최소 二錢에서 최대 三錢이라 말할 수 있다.¹³⁰⁾ 따라서 亡陽證이 初證에서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李濟馬가 사용한 人蔘

128) 亡陽危病藥은 黃耆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이다.

12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人蔘官桂附子湯, 人蔘, 五錢, 或一兩, 官桂, 黃芪, 各三錢, 白芍藥, 二錢, 當歸, 甘草炙, 各一錢, 附子炮, 二錢, 或二錢五分, 薑, 三片, 棗, 二枚"

130) 이것은 桂枝附子湯을 제외한 상태로 考察한 내용이다. 여기서 桂枝附子湯을 제외하고 亡陽證의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사용된 處方을 考察한 이유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桂枝附子湯의 의의가 桂枝湯과 附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27) 補中益氣湯이 亡陽證의 여타의 處方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6) 亡陽證 處方 분석'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과 黃耆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亡陽證 또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亡陽證은 末證으로 진행되는 경우 附子를 사용한다. 이것은 鬱狂證과의 명확한 차이점으로서, 亡陽證의 ‘三日連服而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서 모두 附子를 사용하였다. 이는 李濟馬가 시기적으로 四象醫學 이전의 醫學에서 附子에 대해 설명된 내용들, 예컨대 張元素의 ‘補助陽氣不足’, 李仲梓의 ‘能補命門衰敗之火’, 陳修園의 ‘保復元陽’하는 등의 작용을 亡陽 末證 處方에 더함으로써 ‘升陽’하는 治法과 함께 陽氣를 회복하는 治法¹³¹⁾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²⁾¹³³⁾

4. 少陰人 表病의 ‘益氣’ 및 ‘升陽’ 治法의 作用 考察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의 「腎受熱表熱病論」에서 鬱狂證과 亡陽證을 初證과 中證, 末證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서술하였다. 한편, 李濟馬는 이와 함께 鬱狂證과 亡陽證이 시작되는 證과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 그리고 鬱狂證과 亡陽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의 病機 또한 「腎受熱表熱病論」에 함께 서술하였다. 따라서 初中末로 證狀을 구분한 것과 시작 및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으로 서술한 내용이 病證 단계로 볼 때 거의 같은 내용인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鬱狂證과 亡陽證의 病機를 해석함으로써 益氣 및 升陽 治法의 작용을 밝히고자 한다.

131) 李濟馬는 少陰人에게 附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回陽’의 개념을 차용했음을 밝힌다.

132) 진주표. 傷寒論용어사전.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p.876-877. 李濟馬는 附子가 少陰人에게 어떠한 방식의 작용을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부득이하게 기존의 『東醫壽世保元』 이전에 附子의 작용을 표현한 것을 들어서 대신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133) 이상 본 論文에서 논술한 내용 중 ‘3.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과 鬱狂證 治法 考察’에 해당하는 내용은 筆者가 이미 전에 學界에 발표한 論文인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表病의 益氣 및 升陽 治法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에서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기술한 것임을 밝힌다.

1) 鬱狂證과 亡陽證의 初證, 中證, 末證과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의 「腎受熱表熱病論」에 鬱狂證의 初證과 中證, 末證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初證은 ‘太陽病 表證因在而其人如狂者’, 中證은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 末證은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로 제시하였다.¹³⁴⁾ 한편, 鬱狂證의 시작 및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은 ‘其始焉汗不出不惡寒但惡熱’이라 하였고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其病垂危則澦然微汗出 潮熱也.’라고 하였다.¹³⁵⁾ 이 證狀들 중 먼저 鬱狂 初證과 鬱狂이 시작하는 證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鬱狂 初證의 경우 李濟馬는 명확히 ‘表證因在’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李濟馬는 ‘表證因在’에 대하여 「腎受熱表熱病論」에 ‘身熱煩腦而惡寒之證’이 간간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기술하였다.¹³⁶⁾ 따라서 ‘表證因在’라고 밝힌 鬱狂 初證에서는 惡寒하는 證이 간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鬱狂이 시작하는 證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其始焉汗不出不惡寒但惡熱’로서 惡寒하지 않고 단지 惡熱하기만 한다. 따라서 鬱狂 初證이 鬱狂이 시작하는 證狀으로 기술한 내용보다 先後 상 먼저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鬱狂의 末證과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을 분석해보면, 鬱狂의 末證은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라고 하였고 鬱狂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其病垂危則 澦然微汗出 潮熱也.’라 하였다. 그리고 이 두 證狀을 비교해보면, 潮熱을 제외한 나머지 證狀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證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13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太陽病, 表證因在而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狂言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13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胃家實病, 其始焉汗不出不惡寒但惡熱而其病垂危則, 澦然微汗出, 潮熱也.”

13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表證因在者, 身熱煩腦而惡寒之證, 間有之也.”

같다.

少陰人 鬱狂證에서 病이 진행되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大承氣湯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證狀은 바로 潮熱이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腎受熱表熱病論」에서 歷代 醫家들의 鬱狂證 治驗例를 인용하면서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譫語가 있더라도 潮熱이 있어야만 承氣湯으로 下法을 사용할 수 있으며 潮熱이 없으면 承氣湯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⁷⁾ 또한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인용한 부분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직접 「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病」이라 표현한 부분에서도 潮熱이 있으면 大承氣湯을 쓸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大承氣湯을 쓸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⁸⁾ 따라서 李濟馬 스스로 鬱狂證의 末證에 해당하는 證狀 중에서 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별 기준으로서 潮熱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鬱狂의 末證과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 모두 鬱狂證이 진행되는 단계 중 大承氣湯을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鬱狂 末證과 鬱狂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證狀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腎受熱表熱病論」에서 秦漢시대의 醫方治法을 언급하면서 張仲景의 大承氣湯의 適應證에 관해 논술하였는데, 여기서 大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는 鬱狂證의 證狀을 제시한 후¹³⁹⁾ 바로 이어서 이 證이 극렬한 경우에 발생하는

證狀에 관해 기술하였다.¹⁴⁰⁾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鬱狂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大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는 適應證과 일치하며, 鬱狂 末證에 해당하는 證狀은 두 가지로 나뉘어 ‘潮熱狂言’의 경우 大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는 適應證 안에 포함되어 있고 ‘微喘直視’의 경우 大承氣湯의 適應證이 극렬한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大承氣湯의 適應證	大承氣湯의 適應證이 극렬해진 상황
證狀	澼然微汗出胃中燥煩實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日晡所發潮熱不惡寒狂言如見鬼狀	不識人循衣摸床惕而不安微喘直視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	澼然微汗出 潮熱	無
鬱狂 末證	潮熱狂言	微喘直視

표 6. 鬱狂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과 鬱狂 末證

이는 사실 상 두 證이 발생하는 시간 차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證狀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鬱狂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과 鬱狂 末證 모두 大承氣湯의 適應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鬱狂 末證이 鬱狂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에 비해 鬱狂證의 극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證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鬱狂證과 더불어 亡陽證에 대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初證은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 中證은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末證은 ‘陽明病 發熱汗多者’로 제시하였다. 한편 亡陽證의 시작 및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하는 證狀은 ‘其始焉汗自出不惡寒’이라 하였고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두 분류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亡陽의 中證과 亡陽證이 시작하는 證狀을 비교하여

時而用之則神效.”

14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若劇者, 發則不識人循衣摸床惕而不安微喘直視, 用之於此則脈弦者生, 脈澁者死”

13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成無己明理論曰,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乃爲潮熱也.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手足澼然微汗出者, 此大便已硬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13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蓋此方, 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日晡所發熱者可用而其他則不可用也.”

13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2-653. “論曰, 秦漢時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其人澼然微汗出, 胃中燥煩實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不惡寒, 狂言如見鬼狀之

狀이 일치하며, 亡陽證의 末證과 亡陽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亡陽 初證의 證狀이 亡陽證이 시작하는 證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며, 亡陽 末證과 亡陽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시간 차가 없이 발생하는 證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鬱狂證과 亡陽證은 모두 初證이 시작하는 證狀에 비해 시간 상 먼저 발생하며, 末證과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은 대체로 비슷한 시점과 정황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少陰人 表病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을 病證 진행 상 末證과 동일한 시점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病機를 해석함으로써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少陰人 表病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의 病機와 升陽 및 益氣 治法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少陰人 表病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의 病機와 升陽 및 益氣 治法간의 연관성을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鬱狂證의 治法은 ‘益氣而升陽’을 기본으로 하되,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은 약화되고 益氣는 강화된다. 그리고 亡陽證의 治法 또한 ‘益氣而升陽’을 기본으로 하되,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升陽하는 治法이 유지되면서 附子가 사용되고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하는 작용이 강해진다. 따라서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은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益氣하는 작용이 강해지는 것은 같지만, 升陽과 附子의 작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少陰人 表病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과 그에 대한 病機를 末證과 동일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논지를 전개해보면, 李濟馬는 鬱狂證의 末證에 해당하는 病機로서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라고 기술하였다.¹⁴¹⁾ 그리고 亡陽證의 末證에 해당하는 病機로서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라고 기술하였다.¹⁴²⁾ 이것

을 앞서 少陰人 表病의 末證에 해당하는 治法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鬱狂證의 末證에 해당하는 治法은 升陽이 약화되고 益氣가 강화된 것으로서 病機와 관련지어볼 때 그 작용이 表寒을 떨쳐내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亡陽證도 鬱狂證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末證에 해당하는 治法은 升陽이 유지되고 附子가 사용되면서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益氣가 강화되는 것으로서, 病機와 관련지어볼 때 그 작용이 裏熱을 撐支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升陽 및 附子	益氣	作用
鬱狂 末證의 治法	升陽이 약화되며, 附子は 사용되지 않음.	강화됨.	表寒 振發
亡陽 末證의 治法	升陽이 유지되고, 附子도 사용됨.	강화됨.	裏熱 撐支

표 7. 少陰人 表病의 末證에 해당하는 治法과 그 作用

여기서 少陰人 表病의 病機를 표현한 이 두 문장의 내용이 달라진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益氣가 강화된 상황에서 ‘升陽이 약화되었는가’와 ‘升陽이 유지되면서 附子의 작용이 더해졌는가’에 따라 ‘表寒振發’과 ‘裏熱撐支’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李濟馬가 사용한 升陽과 益氣의 작용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升陽과 益氣가 함께 사용된 治法이기 때문에 명확히 升陽과 益氣를 나누어 논할 수 없지만, 益氣하는 治法의 작용은 대체로 表에 그 주된 작용이 있으며 升陽하면서 附子를 사용하는 治法의 작용은 대체로 裏에 그 주된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升陽하는 治法과 附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된 작용 대상이 裏의 ‘熱’이며, 益氣의 경우 그 주된 작용 대상이 表의 ‘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³⁾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

143) 鬱狂 末證에 해당하는 治法은 앞서 鬱狂證 治法의 특징에 대해 논증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八物君子湯, 獨參八物君子湯의 계통과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계통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계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鬱狂 末證에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계통은 李濟馬가 腎陽困熱과 치험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술한 八物君子湯과 獨參八物君子湯에 비해 鬱狂證의 중심 맥락이 아니며,

14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142)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펴보면 다음과 같다.

升陽과 益氣는 李濟馬가 ‘益氣而升陽’이라고 함께 표현할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治法이지만, 엄밀히 분석해보면 升陽이 더 근본적이고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治法이며 益氣는 升陽하는 작용이 이루어진 후에 正氣가 안에서 밖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治法임을 알 수 있다. 두 治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가 기술한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絶之候也.’와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를 살펴보면 李濟馬가 기술한 少陰人 表病의 病機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섬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문장이 少陰人 表病과 관련된 病機의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각각 ‘裏熱’과 ‘表寒’, ‘撐支’와 ‘振發’, ‘勢’와 ‘力’으로 ‘裏熱撐支之勢’와 ‘表寒振發之力’로서 서로 대등하게 기술되어 있다.

둘 중 먼저 ‘裏熱撐支之勢’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서 ‘裏熱’이 가리키는 바는 邪氣가 아닌 正氣이다. 그 이유는 裏熱을 ‘撐支’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邪氣일 수 없으며, 또한 李濟馬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亡陽의 病機에 대해서 李梴의 말을 빌어 ‘眞陽脫亡’에 해당하는 證으로 기술하였는데¹⁴⁴⁾, 이것은 正氣인 陽氣가 脫하여 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陽氣를 撐支해야 하는 상황과 맥락 상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裏熱撐支之勢’에서 裏熱을 撐支하는 ‘勢’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외부에 구체적인 실체로서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¹⁴⁵⁾ 이를 정리하면, ‘裏熱撐支之勢’는 인체 내부에서 正氣를 撐支함으로써 正氣의 작용이 실제적으로 외부로 발현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正氣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表寒振發之力’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서 ‘表寒’이 가리키는 바는 邪氣이다. 왜냐하면 表寒을 ‘振發’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正氣일 수 없으며, 또한 李濟馬가 鬱狂에 대하여 外證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기술하면서 寒邪와 더불어 表에서 서로 다룬다는 내용¹⁴⁶⁾을 서술한 상황과 맥락 상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寒을 振發하는 ‘力’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勢’와 달리 구체적인 실체로서 외부세계에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⁷⁾ 이를 정리하면, ‘表寒振發之力’은 인체 내부에서 생성된 正氣를 바탕으로 외부의 邪氣와 실제적으로 다투어 表邪를 체외로 내보내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裏熱撐支之勢’와 ‘表寒振發之力’을 각각 升陽과 益氣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해석해보면, ‘升陽’의 작용은 곧 裏熱을 撐支하고 내부적으로 正氣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益氣’의 작용을 表邪와

오히려 亡陽證의 중심 맥락에 해당한다. 실제로 鬱狂證의 腎陽困熱에서 黃耆桂枝湯으로부터 升陽益氣湯으로 연결되는 處方 운용은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사용하는 處方 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升陽益氣湯과 升陽益氣附子湯을 통해 升陽益氣湯이 亡陽證의 중심 處方이 됨은 앞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온 내용이다. 따라서 鬱狂 未證에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맥락으로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의 病機를 다룰 경우 鬱狂 未證과 亡陽 未證의 病機의 차이가 없어지며, 만약 李濟馬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하여 表寒과 裏熱로 섬세하게 구분해 기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鬱狂 未證에 升陽하는 작용은 약화되고 益氣하는 작용은 강화되는 것으로서 鬱狂 未證에 해당하는 病機와 연결지어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14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李梴醫學入門曰,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故, 謂之亡陽”

145) 여기서 ‘勢’라는 표현은 李濟馬가 ‘升氣’가 아닌 ‘升陽’으로 표현한 것과 맥락 상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陰과 陽은 微兆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升陽의 ‘陽’의 의미가 외부로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勢’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裏熱 또한 熱으로써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외부세계에 표현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서 ‘裏熱을 撐支하는 勢’로써 표현한 것은 陽의 작용이 결과적으로 ‘熱’이 아닌 ‘勢’로써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裏熱撐支之勢’의 ‘勢’는 ‘表寒振發之力’의 ‘力’과 비교할 때 밖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전이자 바탕이다. 따라서 陰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부로 표현되는 微兆로서 陰陽 운동을 인식할 수 있음과 같이 ‘勢’ 또한 하나의 외부적인 微兆가 되어 내부적인 陽의 운동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14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 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 與寒邪相爭於表也”

147) 이것은 李濟馬가 ‘益陽’이 아닌 ‘益氣’로 표현한 것과 맥락상으로 통한다. 氣와 血은 陰陽과 달리 실제적으로 운동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氣’와 ‘力’을 관련지어 서술한 것이다.

싸워서 邪氣를 체외로 내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내부적인 역량이 바로 선 후에 밖에 있는 외적과 더불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체가 表邪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益氣’ 治法 이전에 陽이 제대로 승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에 正氣를 공급하는 ‘升陽’ 治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升陽’이 ‘益氣’에 비해 더욱 근본적인 治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升陽’이 ‘益氣’에 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근본적인 治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李濟馬가 亡陽證과 鬱狂證에 사용한 處方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亡陽證의 경우 李濟馬는 기본적으로 益氣하는 治法의 強弱과 상관없이 桂枝湯을 기본 바탕에 두고 處方을 구성함으로써 升陽하는 治法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鬱狂證의 腎陽困熱에 사용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의 경우에도 升陽하는 治法을 가장 먼저 사용한 후 鬱狂證이 진행될수록 단계별로 益氣하는 약물을 더하였으며, 이를 통해 李濟馬는 鬱狂證의 경우에도 升陽하는 治法을 益氣보다 먼저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⁸⁾ 따라서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에 기본적으로 升陽을 먼저 바탕에 두고 益氣하는 治法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益氣보다 升陽이 선후상 먼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인 少陰人의 생리 기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少陰人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리 상태는 陽氣가 제대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것은 李濟馬가 亡陽證의 病機에 대해 陽不上升이라고 표현한 부분¹⁴⁹⁾과 鬱狂證의 病機에 대해 腎局陽氣가 直升하여 脾局陽氣에 接하지 못한다는 내용¹⁵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陽氣가 裏에서 表로 제대로 상승하는 것을 정상 생리로 전제할 경우, 당연히 裏의 陽氣를 撐支하는 것이 表의 寒邪를 振發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升陽이 益氣에 비해 먼저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은 升陽益氣湯을 통해서도 명확히 증명된다. 升陽益氣湯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創方한 處方으로서, 處方名이 ‘益氣升陽湯’이 아닌 ‘升陽益氣湯’이다. 그런데 李濟馬는 이 處方을 亡陽證과 함께 ‘益氣而升陽’을 기본 治法으로 하는 鬱狂證에도 升陽益氣湯이라는 處方名 그대로 사용하였다.¹⁵¹⁾ 이것은 李濟馬가 ‘升陽益氣湯’의 處方名에서 기술한 순서대로 升陽이 이루어진 후에 益氣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升陽’ 및 ‘益氣’의 作用 機轉

升陽과 益氣의 구체적인 작용 기전을 少陰人 表病의 일반적인 病機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升陽의 구체적인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앞서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라는 말처럼 升陽은 脾가 끊어지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脾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升陽하는 治法이 연결하는 것은 바로 腎陽과 脾陽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亡陽證의 病機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鬱狂證에 대해서는 그 病機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 鬱狂證의 病機를 중심으로 升陽의 작용 기전에 대해 考察해보고자 한다.¹⁵²⁾ 李濟馬는 鬱狂證의 病理 機轉을 腎局陽氣가

局, 鬱縮膀胱之證也.”

148) 여기서 讀者들은 八物君子湯의 경우 升陽하는 작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論文에서 이후 鬱狂證의 病機를 考察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149)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86.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穴, 先汗, 則病必愈也. 而二日三日, 汗不止, 病不愈, 則陽不上升而亡陽無疑也.”

150)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65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

151) 升陽益氣湯을 亡陽證에 사용한 내용은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이며, 鬱狂證에 사용한 내용은 “少陰人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故大黃, 枳實, 厚朴, 芒硝之藥, 亦能成功於此時而劇者, 猶有半生半死, 若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與巴豆丹則雖劇者, 亦無脈弦者生, 脈濇者死之理也”(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이다.

152) 亡陽證이 아닌 鬱狂證으로 升陽의 작용 기전을 考察할 수 있는 근거는 鬱狂證 또한 亡陽證과 같이 ‘益氣而升陽’을

脾局陽氣에 연결되어 접하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¹⁵³⁾ 이것은 腎局陽氣와 脾局陽氣가 裏에서 연결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며, 앞서 ‘裏熱撐支之勢’의 裏가 버티지 못함으로써 ‘脾絕之候也’에서 말한 바와 같이 脾가 끊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升陽하는 治法은 腎陽과 脾陽이 裏에서 연결되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益氣의 작용 機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李濟馬는 太陽病에 外證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은 陽氣의 힘이 비록 抑鬱되어 있으나 오히려 능히 寒을 떨칠 수 있어서 寒邪와 더불어 表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하였으며,¹⁵⁴⁾ 抑鬱된 陽氣는 膀胱에 鬱縮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⁵⁵⁾ 이것은 앞서 ‘表寒振發之力’의 表에서 寒邪를 떨쳐내는 것으로서 ‘胃竭之候也’의 胃가 表寒을 떨쳐내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益氣하는 작용은 膀胱에 抑鬱되어 있는 陽氣를 도와서 裏에서 막히지 않고¹⁵⁶⁾ 表로 나아가 表의 寒邪를 떨쳐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鬱狂證과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 考察

지금까지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 차이와 升陽과 益氣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治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益氣의 작용 기전 또한 鬱狂證의 病機를 통해 考察할 수 있다.

153)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65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154)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155)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1-65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156) 李濟馬는 鬱狂證의 外證이 모두 없어지면 陽氣가 마침내 窮困縮伏의 勢가 된다고 하였다.(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不能振寒而遂爲窮困縮伏之勢也.) 따라서 太陽病에 外證이 있을 때 裏에 막혀있는 陽氣를 도와서 풀어내면 ‘窮困縮伏之勢’와는 반대로 表로 나아가 풀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 지금부터 鬱狂證과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해 考察해보고자 한다.

1) 鬱狂證의 病機 및 治法 考察

鬱狂證은 기본적으로 升陽과 益氣의 治法을 바탕으로 하며,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亡陽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升陽하는 治法에 비해 益氣하는 治法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末證으로 진행될 때 桂枝가 빠지고 芍藥이 줄어드는 것을 통하여 升陽하는 治法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人蔘이 一兩이나 사용되는 것을 통하여 益氣하는 治法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末證이라 하더라도 升陽하는 治法은 일정 수준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桂枝湯의 구성 중 桂枝가 빠진 것일 뿐 나머지 다른 약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鬱狂證의 病機와 함께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鬱狂 初證은 陽氣가 表寒과 능히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 또한 自汗이 나지 않는데,¹⁵⁷⁾ 이것은 아직 胃가 表寒을 振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胃에 表寒을 振發할 陽氣를 공급해주는 脾가 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弱한 상태 또한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李濟馬는 이러한 상황을 鬱狂의 輕病이라고 하였다.¹⁵⁸⁾ 하지만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되게 되면 ‘澀然微汗出’하는 自汗이 出함으로써 亡陽證과 마찬가지로 鬱狂證 또한 脾弱의 상황이 되는데,¹⁵⁹⁾ 이것은 鬱狂證에서 인체의 正氣가 表의 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밀려서 膀胱에 鬱縮되어 있던 陽氣가 窮困縮伏¹⁶⁰⁾해진 상태로 약해진 것을 의

157)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15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少陰人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159) “少陰人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澀然微汗出’은 鬱狂證에서 自汗이 出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본래 自汗不出하여 脾가 弱하지 않았던 鬱狂證이 亡陽證과 마찬가지로 脾弱으로 진행된 상태를 알 수 있다.

160) 窮은 陽氣가 다한 것을 가리키고, 困은 陽氣가 완전히 막힌 것을 가리키며, 縮은 陽氣가 위축된 것을 가리키고,

미한다.¹⁶¹⁾ 따라서 鬱狂證이 이렇게 末證으로 진행되게 되면 陽氣가 窮해지게 되어 鬱狂證 또한 危證으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鬱狂 末證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陽氣를 생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升陽의 기본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亡陽證과 동등한 수준으로 鬱狂證에 升陽 治法을 실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鬱狂證은 亡陽證과 달리 기본적으로 寒邪에 막혀서 裏에 陽氣가 鬱縮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裏에 陽氣가 鬱縮되어 있는 상태에서 裏의 陽氣를 表로 소통시키지 않고 무작정 桂枝, 官桂, 附子 등으로 裏의 陽을 발생시키면서 무작정 表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막혀있는 陽에 陽을 더함으로써 도리어 陽氣가 더욱 울체되고 자체적으로 소모되도록 하는 것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힌 陽氣가 表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鬱縮된 것을 풀어주고 表邪를 내보내주는 益氣 治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에 보조적으로 裏의 鬱縮된 陽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腎陽이 脾陽과 連接하는 것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정도의 升陽 治法을 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鬱狂 末證의 경우 人蔘을 一兩까지 증량하여 益氣하는 治法을 중심으로 삼고, 桂枝를 빼고 白芍藥을 줄여서 升陽하는 治法을 보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益氣하는 治法의 強弱과 보조를 맞추어 사용하였다.¹⁶²⁾¹⁶³⁾

伏은 陽氣가 눌러서 얽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窮困縮伏은 모두 陽氣가 약해진 것을 의미하는데, 伏에서 縮, 困, 窮으로 진행될 수록 陽氣가 약해져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16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不能振寒而遂爲窮困縮伏之勢也”

162) 여기서 李濟馬가 八物君子湯에 桂枝湯의 구성 약물 중 桂枝를 빼고 白芍藥의 양을 줄여서 사용한 구체적인 목적은, 少陰人의 陽氣를 裏에서 表로 끌어올리되 이미 腎局과 脾局 사이, 膀胱의 위치에 해당하는 下焦와 中焦 사이에서 陽氣가 막혀있기 때문에 억지로 裏陽을 만들어내면서 陽氣를 表로 끌어올리는 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中焦와 下焦의 陽氣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163) 여기서 考察한 바를 바탕으로 李濟馬가 鬱狂證의 治法으로 제시한 ‘益氣而升陽’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益氣와

한편, 鬱狂 末證과 달리 鬱狂 初證의 경우에는 裏의 陽이 鬱縮된 것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 八物君子湯과 같이 桂枝를 빼거나 하여 升陽하는 작용을 줄이지 않고 桂枝湯을 그대로 활용하며 여기에 陽氣가 울체된 것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 예컨대 川芎桂枝湯에서 桂枝湯에 川芎, 蒼朮 陳皮를 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鬱狂 初證을 풀어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升陽하는 治法을 중심에 두고 裏陽을 解鬱시켜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의 益氣 治法을 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表邪를 내보내는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益氣 治法이 川芎桂枝湯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 결과적으로는 表邪를 내보내는 益氣 治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川芎桂枝湯은 지표 약물 분석으로서는 升陽 위주의 處方이 되지만, 사실 상 處方의 중심이 益氣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李濟馬가 鬱狂 初證에서 川芎桂枝湯 다음으로 사용하는 黃耆桂枝湯의 경우, 桂枝湯에 黃耆, 白何首烏, 當歸를 더함으로써 川芎桂枝湯에 비해 益氣하는 작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黃耆桂枝湯 다음으로 사용하는 八物君子湯에는 앞서 川芎桂枝湯에 解鬱을 목적으로 사용한 川芎과 陳皮를 다시 더하고 黃耆桂枝湯의 黃耆와 當歸, 그리고 白何首烏 대신에 益氣하는 힘이 더욱 강한 人蔘을 더하였는데¹⁶⁴⁾,

升陽 治法은 선후로 파악할 때 升陽이 먼저가 되고 益氣가 나중에 된다. 따라서 李濟馬가 제시한 ‘益氣而升陽’을 益氣와 升陽 治法 간의 선후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鬱狂證의 경우 亡陽證과 달리 病이 末證으로 진행될 수록 益氣가 강조되며 升陽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益氣而升陽’은 升陽과 益氣하는 治法 모두 鬱狂證에 쓰이지만, 鬱狂證의 경우 益氣가 더욱 중심되는 治法이기 때문에 益氣를 먼저 언급하고 후에 升陽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益氣而升陽’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益氣를 중심 治法으로 삼고 升陽을 보조하는 治法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4) 李濟馬는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서 八物君子湯에 대해 서술하면서 첫 머리에 “本方, 以白何首烏, 易人蔘則, 名曰白何首烏君子湯”(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8.)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八物君子湯 안에서도 人蔘과 白何首烏를 비교할 수 있으며, 李濟馬가 八物君子湯에서 白何首烏 대신 益氣하는 힘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人蔘을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의 양을 一兩으로 늘려 獨蔘八物君子湯으로까지 응용하는 것을 볼 때 白

이것은 사실 상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의 方義를 합하면서 이와 함께 桂枝, 白芍藥의 升陽하는 治法을 약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八物君子湯은 川芎桂枝湯의 解鬱 작용과 黃耆桂枝湯의 表寒을 振發하는 작용을 합하여 앞서 두 處方에서 益氣 작용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李濟馬가 사용한 鬱狂證의 處方들은 모두 益氣 治法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¹⁶⁵⁾

한편, 鬱狂 末證의 處方 운용에는 八物君子湯과 獨參八物君子湯을 사용하는 중심 맥락 외에 升陽益氣湯을 사용하는 맥락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鬱狂證의 경우도 末證으로 진행되면 ‘澌然微汗出’하는 自汗이 出함으로써 亡陽證과 마찬가지로 脾弱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亡陽證에 비해 陽氣가 實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桂枝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升陽하는 治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鬱狂證 治驗例 중 『醫學綱目』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¹⁶⁶⁾ 鬱狂 末證에서 大補하는 약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여기에 약간의 桂枝를 통해 脈을 조화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升陽益氣湯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鬱狂證의 경우에도 亡陽證의 중심 處方인 升陽益氣湯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으로 일부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⁷⁾

2)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 考察

何烏君子湯의 白何首烏 二錢과 八物君子湯의 人蔘 二錢, 그리고 獨參八物君子湯의 人蔘 一兩으로 益氣하는 힘을 증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65) 기본적으로 鬱狂證과 亡陽證은 모두 少陰人의 表病에 해당한다. 따라서 表를 다스리는 益氣 治法은 당연히 少陰人의 鬱狂證과 亡陽證 치료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166)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醫學綱目曰, 嘗治循衣摸床者數人, 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購振脈代, 遂於補劑中 略加桂, 亦振脈和而愈”

167) 이 부분에서 筆者는 鬱狂 末證 또한 亡陽 末證과 같이 升陽益氣湯에 이어 附子를 사용해야하는 證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는 단지 亡陽證과 같이 脾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한 것임을 밝힌다.

亡陽證 또한 鬱狂證과 같이 기본적으로 升陽과 益氣의 治法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末證으로 진행될 경우 鬱狂證과 달리 升陽하는 治法의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附子를 사용하면서 益氣하는 治法 또한 강화한다. 이를 病機와 함께 살펴보면, 鬱狂證의 경우 初證에 陽氣가 아직 弱하지 않지만 亡陽證의 경우에는 初證에 自汗出이 시작되어 陽氣가 매우 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輕證과 重證이 아니라 바로 險證으로 진행되며, 陽氣가 表寒과 더불어 싸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亡陽證은 鬱狂證과 같이 陽氣가 膀胱에 鬱縮한 상황이 아니라 脫하여 밖으로 膀胱으로 달아난 상황이다.¹⁶⁸⁾¹⁶⁹⁾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亡陽證을 치료하기 위해 表寒을 내쫓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陽氣를 사용할 경우 도리어 裏陽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비유컨대, 내부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외적을 내쫓겠다고 덤비다가는 국력이 완전히 소모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陽氣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본래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裏에서 陽氣를 위협하는 寒邪를 없애면서 裏陽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治法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表의 寒邪를 내보내도록 하는 治法이 필요하다. 이 중 전자는 桂枝湯으로써 升陽하는 治法과 附子の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¹⁷⁰⁾ 후자는 益氣하는

168)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6.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下陷大腸, 而外通膀胱, 故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非陽盛也, 此所謂內冰外炭, 陽將亡之兆也”

169) 李濟馬는 鬱狂證 腎陽困熱에서 川芎桂枝湯으로써 가볍게 解鬱하는 處方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지만, 亡陽證의 경우에는 가볍게 解鬱하는 作用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補하는 중심으로 하는 黃耆桂枝湯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亡陽證의 陽氣가 鬱縮되는 것이 아니라 脫하고 있으므로 바로 補法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鬱狂證보다 亡陽證의 證狀이 더 심각하여 더 강한 약력의 處方을 시급하게 사용해야 함 또한 알 수 있다.

170) 李濟馬가 亡陽 末證에 附子를 사용한 것은 升陽을 의미하는 桂枝湯과 같이 연관하여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李濟馬는 亡陽 末證에 사용하는 處方 중 桂枝附子湯에 附子 三錢을 더하여 가장 많은 양의 附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李濟馬가 附子를 人蔘과 黃耆 등 다른 약물이 아닌 桂枝湯과 함께 과약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四象醫學 이전의 醫家들이 附子에 작용에 대해 기술한 내

治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亡陽證의 末證에 사용되는 중심적인 약물들과 관련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亡陽 末證에 먼저 附子를 사용하여 回陽하는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를 통해 脫하여 도망한 陽氣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¹⁷¹⁾ 그리고 桂枝湯과 官桂¹⁷²⁾ 등을 통하여 升陽시킴으로써 腎局陽氣와 脾局陽氣를 連接시켜 줌으로써 裏陽을 회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人蔘과 黃耆 등의 益氣하는 약물로서 表寒을 내보내도록 한다.¹⁷³⁾

III. 結論

『東醫壽世保元』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한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壽世保元』少陰人 表病의 경우 病證藥理 중심의 研究 方法論을 통하여 研究를 진행할 수 있으

용과 함께 살펴볼 때에도 桂枝湯과 附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四象醫學 이전의 주가들은 附子의 작용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補助陽氣不足’, ‘能補命門衰敗之火’, ‘保復元陽’, ‘回陽救逆’등으로 기술하였으며, 대체적으로 元陽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附子의 작용인 元陽을 회복하는 것과 『東醫壽世保元』에서 분석한 바 桂枝湯이 升陽으로서 陽이 상부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은 모두 陽이라는 공통된 대상에 대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回陽’한 후에 ‘升陽’하는 것은 순서 상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171) 여기서 附子의 작용을 서술하는 부분은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기술된 내용이 아니며 부득이하게 역대 主家들의 의견으로 附子의 작용을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172) 官桂는 앞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裏病의 주요 약물로서 處方에 升陽하는 治法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 약물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官桂에 대해서 논한다면, 官桂는 肉桂로서 桂枝와 기원이 같다. 따라서 桂枝가 升陽의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官桂 또한 사실 상 升陽의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73) 여기서 益氣 治法의 일차적인 목적은 表寒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裏陽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李濟馬는 亡陽證의 垂危에 해당하는 證狀의 病機를 서술하면서 ‘裏熱撐支之勢’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亡陽證의 末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병리적인 상황이 裏熱이 撐支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亡陽 末證의 益氣 治法 또한 表寒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보다 裏熱을 撐支해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며, 이 경우 少陰人의 3가지 處方 編制 중 ‘新定 少陰人病 應用腰藥 二十四方’을 가장 기본적인 研究 도구로 삼아야 한다.

2. 少陰人 表病에 사용된 升陽 治法은 裏의 陽氣를 撐支하는 것이며, 益氣 治法은 升陽 治法을 통해 확보된 裏의 陽氣를 이용하여 表의 寒邪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鬱縮된 陽氣를 풀어내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升陽 治法은 益氣 治法에 비해 순서 상 앞서게 되며, 더 근본적인 治法이 된다. 하지만 李濟馬는 실제로 處方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鬱狂證과 亡陽證에 모두 益氣 治法과 升陽 治法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升陽 治法과 益氣 治法은 함께 매우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治法임을 알 수 있다.

3. 鬱狂證의 治法은 益氣하는 治法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升陽하는 治法을 겸한다. 鬱狂證에서 益氣하는 治法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陽氣가 鬱縮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表寒을 풀어냄으로써 鬱縮된 陽氣가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鬱狂證에 升陽하는 治法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陽氣가 약해지게 되어 결국 亡陽證과 같이 脾弱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鬱狂 初證에서는 陽氣의 울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桂枝湯 정도의 강도로 升陽 治法을 활용하되, 川芎, 蒼朮, 陳皮로써 가볍게 解鬱하는 정도의 益氣 治法을 겸하여 활용한다. 하지만 鬱狂 末證에서는 陽氣의 鬱縮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桂枝, 官桂, 附子 등으로 갑작스럽게 裏의 陽氣를 더해서 鬱縮을 더욱 심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裏의 陽이 상승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조절해주는 정도로 升陽 治法을 활용한다.

4. 亡陽證의 治法은 鬱狂證과 달리 末證으로 갈수록 升陽하는 治法과 附子의 作用, 益氣하는 治法이 모두 중요하다. 그 이유는 亡陽證은 鬱狂證과 달리 裏의 陽氣가 脫하여 사라지고 있는 虛證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裏의 陽氣를 보호하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附子의 作用과 升陽 治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益氣 治法을 더하여 表의 寒邪를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5. 亡陽證과 鬱狂證의 處方 모두 桂枝湯을 바탕으로

로 하여 시작된다. 이는 少陰人 表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升陽이며, 陽氣가 제대로 상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少陰人 表病이 발생하게 됨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腎受熱表熱病論」에 기술된 ‘發熱惡寒而無汗者’의 단계가 단순히 鬱狂證의 초기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의 寒邪에 막 감수되어 少陰人 表病이 발생되었으나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단서가 된다.

感謝의 글

이 論文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의 2단계 Brain Korea 21 事業의 지원을 받아 研究되었음.

參考文獻

<논문>

1. 이의주, 송일병. 少陰人·少陽人篇의 表病·裏病에 대한 考察(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四象醫學회지. 1996. 8(1). p.46.
2. 김용국.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四象醫學회지. 1991. 3(1). pp.85-86.
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p.65.
4. 박성식, 송일병. 四象醫學의 의학적 연원과 李濟馬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東醫壽世保元』인용문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32.
5. 황민우. 四象醫學의 病因과 少陰人 少陽人 病理論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p.51, 53.
6. 이수경.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2.
7.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少陰人과 少陽

人 病證論의 陰氣와 陽氣에 관한 概念.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18(1).

8. 한경석, 박성식. 少陰人 藥理의 形成過程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18(2).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550, 648,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8, 659, 663, 666, 672, 673, 674, 676, 677, 678, 681, 685, 686, 688, 704, 724. pp.651-652, 652-653.
2.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57, 1212.
3. 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56, 1221.
4. 진주표. 『傷寒論』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p.876-877.